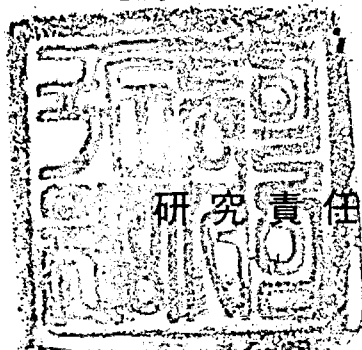


'89신진학자통일연구

# 北韓의 幼年期 社會化에 대한 研究

1989



研究責任者: 박영옥 (成均館大)

國土統一院



##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統一 및 北韓 問題 新進學者 育成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研究結果 報告書 입니다.

本 研究는 초기 政治社會化論의 관점에서 幼年期 社會化와 體制維持와 관련을 검토하고 延후에 諸般 制度的 特性과 관련성을 分析하였습니다.

이 冊字가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參考資料로 적극 活用되어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9. 12.

調 查 研 究 室



## 要 約 文

본 論文은 北韓社會의 幼年期 社會化의 特性을 분석한 것이다. 北韓 社會體制는 變化가 정체된 장기적인 金日成지배체제를 維持해오고 있다. 이러한 體制維持의 이면에는 철저한 統制機構의 작동이외에도 대다수 인민층에게 체제에 대한 同調와 支持態度를 社會化시키는 課程이 存在한다. 특히 장기적 體制維持는 초기 政治社會化論者들에 따르면 特殊支持(specific support)보다 확산된 지지(diffused support)의 形成에 기반한다. 유년기 政治社會化 과정은 곧 확산된 지지와 연결되는 정치적 正向의 형성과정이므로 北韓의 유년기 정치사회화를 연구하는 것은 金日成지배체제의 장기적 유지를 해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또한 본 研究는 北韓의 정치사회화과정 연구에서 核心的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된 유치원이하 어린이층의 社會化課程을 특히 부각시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研究는 多次元的 接近을 試圖하였다. 먼저 北韓社會의 幼年期社會化의 特性을 공포된 유년기사회화 目標속에서 밝혀보고, 이어서 유년기사회화매체에 포함되는 家庭, 託兒所와 幼稚園, 人民學校등에서 일어나는 사회화과정의 特性을 考察한 연후에 동화분석을 통해 出版매체를 통한 사회화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동화의 內容分析은 제한된 資料의 制約을 벗어나서 보다 생생한 社會化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먼저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교육원리, 조선노동당 당원규약등 一聯의 주요문건들을 통해 북한사회내 핵심정치사회화 주제이자 유년기 사회화목표를 추출하였다. 공통적인 것으로 抽出된 핵심정치사회화 주제는 ① 집단주의 ② 김일성애의 忠誠 ③ 노동애호 ④ 계급교양 ⑤ 社會主義의 愛國主義 ⑥ 主體思想 ⑦ 남한에 대한 態度(적개심) ⑧ 혁명교양이다.

이상의 핵심 정치사회화주제는 유년기 사회화 주도 매체인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인민학교에서 각각의 形式속에서 공통적으로 社會化되는 內容이 되는 셈이다. 北韓의 家庭내 社會化의 特性과 상세한 課程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적어도 60년대 이후 가정이 思想革命의 하부단위로 意味를 부여받고 있음에 비추어 核心 政治社會化 主題들은 가정의 사회화과정에서도 기본 토대로 활용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이 論文을 유치원과 탁아소 등 유아보육/교육시설에서 政治社會化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把握키 위해 北韓의 敎養院 經驗담을 담은 「어린이 보육교양 경험」과 보육원 지도 指針書인 「유치원 교양원 참고서-유치원 초급반용-」를 입수 分析하였다. 특히 유치원 正規教育內容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치원 교양원 참고서는 北韓의 유년기 教育內容에 核心政治社會化 주제들이 강력히 反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들면 우리말 敎科에 실린 21개의 이야기중 金日成에의 忠誠을 내세운 敎과가 8개 노동애호를 강조한 敎과가 2개, 어린이 유격활동을 통한 革命敎養을 내세운 敎과가 2개, 남한과 美國帝國主義에 대한 敵愾心을 強調한 것이 4개, 인민군대의 고마움을 強調한 敎과가 1개등으로 敎과내 政治社會化의 비중이 매우 클 뿐 아니라 政治社會化의 內容도 核心政治社會化主題를 거의 그대로 反映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조직적인 政治社會化는 유치원 연령기와 인민학교 초기 연령기가 체제에 대한 종교에 가까운 감정적 同調를 內面化 해내는데 最適의 시기라는 점에서 특히 注目되는 것이다.

인민학교에서는 核心 政治社會化 主題가 보다 더 體系的이고 集中的으로 어린이들에게 注入됨은 두말할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유년기사회화의 제도적 特徵研究에서 더 나아가 본 論文은 총 275편의 동화, 아동소설, 만화(아동그림책)의 내용분석을 통해 유년기 정치사회화의 特性을 밝혀보았다.

分析對象은 동화가 28책 197편, 아동소설이 13책 45편, 만화가 14책 33편이었고, 內容分析의 單位는 중심테마였다.

이 가운데 동화가 가장 어린 연령층의 社會化·出版매체인데 동화 197편의 내용분석 결과 전체의 73.1%인 144편이 核心政治社會化主題를 중심테마로 삼고 있었다. 核心政治社會化 主題중 가장 자주 등장한 주제는 集團主義로, 전체

정치사회화 관련주제 144편중 27.1%인 39편이 여기에 속한다. 이 集團主義는 개인의 공명심 抑制, 집단적 成就의 價値, 집단내 個人的 責任強調, 반이기주의, 집단에 의한 자주방위, 집단과 개인의 소유관계등 다양한 形態로 동화속에서 發現된다. 한편, 두번째로 자주 등장했던 核心政治社會化主題는 계급교양으로 政治社會化主題의 동화중 25.7%인 37편이 이에 해당된다. 이어서 세번째 순위는 金日成에의 충성이란 中心主題이며 22편의 동화가 여기에 속한다. 이상의 3가지 核心政治社會化主題들은 政治社會化 主題의 61.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밖의 社會主義, 愛國主義와 主體思想을 中心主題로 한 동화는 각각 13편 씩이었고, 노동애호를 내건 작품은 10편이었으며 남한에 대한 敵愾心을 鼓吹 단일주제의 작품은 단 1편이었다.

비정치사회화주제를 중심테마로 갖는 동화는 총 53편으로 전체 분석동화의 26.9%였는데 그중에는 슬기, 지혜, 창조적 태도를 고무하는 작품이 가장 많았고(14편), 그 다음으로는 勤勉, 誠實性을 중심테마로 한 작품이 많았으며(12편), 세번째 순위는 傳統美德인 孝誠, 人精, 節操 등을 強調한 작품이었다(1편).

한편 아동소설과 그림책의 경우는 중심테마가 일정한 範圍로 한정되어 있었고, 아동소설은 혁명교양, 계급교양과 金日成에의 충성을 주제로 한 것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림책의 경우는 32편 모두가 혁명교양과 계급교양 및 김일성에의 충성이 혼합된 형태인 중심테마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分析結果 북한사회는 어린이들에게 핵심 정치사회화주제들을 매우 엄격하고 體系的이며 통합적으로 社會化시키고 있음이 確認된다.

이 핵심정치사회화주제는 북한사회의 장기적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態도와 정치적 正當性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중 노동애호와 집단주의의 사회화는 社會主義 휴머니즘으로 肯定的으로 전개될 여지가 열려 있음에 반해 그밖의 주제들—특히 계급교양, 혁명교양등—은 북한의 어린이들을 극단적으로 不正的이고 劃一的이며 偏頗的인 정치적 正當性과 態度로 고착시켜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동화분석에서 특기할 점은 동화속에서 원수에 대한 徹底한

응징을 강조해냄으로써 전 人類의 보편적 가치인 人命尊重思想과 人權尊重意識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경향은 북한의 어린이들의 인명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目 次

I 序論 .....	3
II 初期政治社會化와 體制維持 .....	5
III 北韓의 幼年期社會化의 特性 .....	10
1. 幼年期社會化의 主要目標 .....	10
2. 幼年期社會化의 制度的 特性 .....	16
IV 동화분석을 통해 본 幼年期社會化 .....	23
1. 分析方法 .....	23
2. 分析結果 .....	29
가. 동화 .....	29
나. 아동소설과 만화(아동그림책) .....	51
V 結論 .....	53



## I. 序 論

分斷 44년이 경과하면서 남북한사회체제는 각기 다른 體制構成原理에 따라 이질화가 深化되고 고착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統一念願은 社會意識의 表層에 浮上하지 못했었고 統一의 가능성 역시 現實化하기 어려운 것으로 認識되었다. 다행히 政府는 일부 階層으로부터 전사회적으로 擴散되기 시작한 統一念願을 政策의지로 반영토록 政策的 投入을 받고 있다. 따라서 7·7선언 이후 統一이라는 民族的 課題는 중대한 당면과제로 浮上하게 되었다. 社會意識의 면에서도 갈수록 두터워가는 分斷의 벽을 해소기 위해 相互理解와 信賴의 構築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認識이 점차 國民적 합의를 獲得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7년을 기점으로 北韓社會를 바르게 알고자하는 欲求의 증대도 이러한 社會意識의 反映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엄연한 現實로서 存在하는 이질적인 政治, 經濟, 社會體制때문에 각 體制의 組織원리 및 체제 구성원리에 대한 냉철한 分析과 이해는 統一에 대한 헌신적 熱情못지 않게 통일 의 문을 여는 중요한 關鍵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본 研究는 이러한 問題認識에서 출발하여 北韓社會를 보다 잘 이해기 위한 학문적 努力의 一環이다.

北韓社會는 變化에 대한 유연성이 매우 적고 근래 社會主義 블럭 國家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社會變化의 조짐도 아직은 展望되고 있지않다. 특히 정치체제면에서 金日成支配體制의 성립이후 긴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큰 變化가 외부에 드러나고 있지않다. 일단 現在의 認識水準에서 볼때 北韓의 社會體制는 장기적 金日成支配體制로 석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현상은 北韓社會내 철저한 통제체도의 강제력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점으로서 社會構成員 개개인들로 부터 體制에 대한 종교에 가까운 同調와 지지태도를—즉 대중적 충성(Massenlaylibät)을—일정수준에서

確保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假定된다. 본 研究은 이러한 體制維持를 확보해주는 대중적 충성이 어떠한 社會化課程을 통해 내면화되는가를 밝혀내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研究은 北韓의 인민층을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體制 同調的 상태로 묶어내는 제반 기제를 모두 다르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특히 幼年期(childhood)의 政治社會化課程의 特性을 한 사회의 장기적 체제유지와 연관시키는 체제유지모델(system maintenance model)에 立脚하여 北韓社會의 유년기사회화를 眺望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研究은 기존의 北韓社會의 政治社會化課程을 다른 연구의 성과를 吸收하여 北韓社會의 유년기사회화를 다룸에 따라 기존 연구들이 간과한 취학 전후의 사회화과정의 特性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意義가 있다.

기존 연구 결과들은 北韓社會의 政治社會化課程이 金日成 및 그가 이끄는 조선노동당에 대한 감정적 同調와 論理 이전의 무조건적 충성을 이끌어내는데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 전반과 政治지도자에 대한 감정적 동조나 논리 이전의 무조건적 충성은 초기정치사회론의 시각에서 體制의 장기적 維持와 연관되어 있다.

이 研究은 먼저 초기정치사회화론의 관점에서 유년기사회화와 體制維持와의 關聯을 考察하고 이어서 北韓社會의 유년기사회화의 제반 제도적 特性을 概括한 연후에 동화류의 內容分析을 통하여 北韓社會의 幼年期 政治社會化의 特性을 본격적으로 分析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동화류의 內容分析을 사용한 이유는 北韓社會에 대한 社會學的 接近의 限界를 克服하려는 試圖이다. 北韓社會는 자체내적으로도 각종 社會的 情報의 산출과 유통이 제한되어 있고 공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기초적 資料의 制約이 따른다. 그외에도 分析을 위한 資料의 確保가 어렵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北韓의 幼年期 社會化의 研究을 北韓의 유아교육제도와 教育目標등에 대한 分析으로만 한정할 경우 연구 범역이 크게 제한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 研究에서는 내용분석 方法을 援用하고자 한 것이다.

## II. 初期政治社會化와 體制維持

모든 社會體制는 새세대들을 社會化 시킴으로써 그들 사회의 文化와 구조를 永續시키려 한다. 社會化는 個人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회의 文化와 構造를 肯定的으로 收容하고 거기에 필요한 知識과 態度를 주입받고 教化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사회화는 정치문화로의 유도과정으로 定義된다.<sup>1)</sup> 달리 表現하면 “政治體系的 維持 및 發展을 위하여 個人이 그 社會의 體制規準 및 政治적으로 關聯된 態度를 習得하는 과정”<sup>2)</sup>이다. 따라서 政治社會化의 최종산물은 政治體制와 그것의 役割, 그리고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인지, 價値基準 그리고 느낌등이 된다. 즉 政治社會化의 최종산물은 體制에 대한 要求로서 投入과 權威的 產出에 대한 認識, 價値, 느낌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注目되는 部分은 體制的 維持와 關聯되는 권위적 산출물에 대한 인식, 가치, 느낌등이다.

플라톤 이후 이론가들은 한 사회의 어린이의 훈련이 성인의 政治的 行動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이해해 왔는데<sup>3)</sup> 初期社會化가 한 社會體制的 유지(persistence)와 聯關하여 重視된 이유는 이론적 假定으로 수위원리(primacy principles)에 起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幼年期의 學習이 전생애를 통해 비교적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정치사회화론은 하이만(Herbert H. Hyman)의 研究(1959)에서 始發되고 있다. 하이만은 성인 전(前) 시기의 經驗이 성인의 政治的 行動에 대한 선행조건이라는 점을 強調함으로써 이후의 유년기 政治社會化論의 基礎를 提供하였다. 그 이래로 政治學習은 매우 어려서부터 시작되며 아동기에서 생긴 일들은 성인기의 政治觀 形成에 重要하다는 생각이 政治社會化論의 주요 전제로 받아들여져 왔다.

一般的으로 성인 전 시기의 중요성은 블룸(B. S. Bloom)의 知能發達의 결정적 시기의 研究(1964년) 하이모비치와 플로리(Hymovich & Flory)의 초기

經驗의 중요성에 관한 研究(1952년), 아나스-타시(Aanas-Tasi)의 知能과 環境要因과의 研究(1958년), 프로이드(S. Freud)의 初期의 性格의 基本 構造形成에 관한 연구와 에릭슨(C. E. Erikson)의 성격과 가정조건에 관한 研究 등 發達心理學과 유아교육론에서 強調되어왔던 바이다.<sup>4)</sup> 그러므로 初期 政治社會化論의 幼年期에 대한 強調은 發達心理學과 幼兒教育論의 研究成果를 暗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初期政治社會化를 體制維持모델의 시각에서 把握하는 學者들은 政治體制에 대한 支持를 特殊支持(specific support)보다는 擴散된 支持(diffused support)와 聯關지어 把握하고 있다. 擴散된 支持는 特殊支持가 具體적으로 합리적 논거에 의한 조건부 지지임에 반해 무조건적 지지(예를 들면 애국심등)를 뜻한다. 초기정치사회화는 성인의 擴散된 지지태도의 形成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스톤과 데니스(David Easton & Jack Dennis)의 初期政治社會化研究의 結論은 政治的 權威者에 긍정적 느낌을 발달시키기 시작한 어린이는 부정적 또는 적대적 감정을 발달시키는 어린이보다 체제에 대해 魅力을 喪失하는 정도가 덜하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어린이들이 긍정적 느낌을 습득하는 社會가 政治체제에 대한 더욱 많은 擴散된 支持의 저장을 確保케 된다는 것이다.<sup>5)</sup> 이스톤과 데니스의 初期政治社會化段階는 政治적화(politicalization), 의인화(personalization), 이상화(idealization),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政治적화란 어린이가 부모나 가정보다 더 強力한 權威의 存在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며 의인화란 政治체제의 首腦(예: 大統領, 首領등)등등 상징적 인물을 통해 집권권력 또는 政府의 形체를 이해하고 어린이들이 그들과 먼 거리에 있지만 政治적 權威의 世界를 인지하게 되는 과정이다. 또한 이상화는 어린이들에게 大統領, 경찰관등이 이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초기의 애착은 압도적으로 肯定的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화는 어린이가 政治적 권위자에게 이미 가지고 있었던 積極적 연결이 政治制度(예를 들면 議會, 行政部處, 政務院등)에 대한 肯定的 느낌 즉 擴散된 支持로

變化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과정은 어린이들에게 부과되는 초기사회화가 한 체제의 장기적 유지에 필수적인 擴散된 支持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초기의 政治的 學習중에서도 國民學校에 들어가기전의 이른 시기에 發展되는 政治觀<sup>6)</sup>은 인지적이고 정보적 내용을 결한 채 감·정·적·인 특성을 갖으며 거의 宗教的 感情과 類似한 特性을 갖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sup>7)</sup> 이 政治觀이 擴散된 支持에 보다 밀접한 連관을 갖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랭턴(kenneth p. langton)도 기초적 정치적 정향이 形成되는데는 어린이 시기가 중요하며 高等學校 공민교육과정은 學生들에게 별로 새로운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여 幼年期社會化의 중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다.<sup>8)</sup>

初期政治社會化論은 후속 研究등에서 아동기에 形成된 政治體制에 대한 肯定的 態度가 성인기까지 持續적으로 影響을 미치는 정도에서 이의를 제기받기도 하였다. 즉 어린이의 政治觀의 發達過程만을 주목할 때에도 나이가 들수록 宗教的 感情과 類似한 政治觀이 정보적 인지적 내용을 획득해 나감으로써 政治體制나 주요 權威的 인물에 대한 壓倒的 肯定的 태도에서 肯定的 정도가 완화되어 나타남을 指摘하고 있다. 심지어 초기 經驗의 성인기에의 영속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研究도 있다.<sup>9)</sup> 그러나 擴散된 支持의 側面을 염두에 둘때 아동전기를 중요시하고 일찍 습득한 政治的 正향의 持續을 強調하는 것은 기초적 정치적 충성과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쓸모가 있는 논거로 합의되었다.<sup>10)</sup> 즉 이 기초적 정향이 정치적 자극이 지각되고 個人에 의하여 分類되는 필터나 안경의 역할을 하기 쉽다는 것이다.

1) G. Almond의 정의, 정세구 역, R. E. 도오슨 저 「정치사회화론」, 1981. 범문사, p. 19.

2) 金在永, 「政治社會化論」, 大旺社, 1982. p. 24.

3) Fred I. Greenstein, "The Benevolent Leaders Children's Images of political Authority" A.P.S.R. vol. LIV, No. 4, 1960 p. 934.

4) 羅炳述, 「乳兒教育의 理論과 實際」 教學研究社, 1983. p. 4

이 초기정치사회화론의 시각은 북한의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社會主義 교육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北韓社會는 그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 구성원의 사상, 품격등을 어려서 부터 形成되는 것으로 보고 유치원전 단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계획적인 政治社會化를 실시하고 있다. 北韓社會는 他社會主義國家와 마찬가지로 조기 정치학습의 중요성을 強調하여 중요한 政治사회화내용들을 資本主義國家들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어린이 보육교양에 대한 強調는 朝鮮勞動黨憲法과 여러 문건들에서 뚜렷이 드러나며 1972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5기 4차 전원회의에서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전 의무교육>을 토의한 이래 1975년 9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으로 만5세의 유치원 고급반 아동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던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같은 의무교육 年齡의 아래로의 확대는 북한교육이 정치학습위주로 짜여져 있고 유치원 교육과정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인 제도에 의한 정치사회화실시 연령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제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初期政治社會化論에서 지칭하는 대상 연령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유년기는 유아기(幼兒期)와 아동기(兒童期)를 包括하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초기정치사회론의 대상은 엄밀히 특정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幼兒教育學에서 사용하는 유아기는 출생시부터 만 6세까지도 알려져 있고<sup>11)</sup> 아동기는 國民學校 教育의 대상이 되는 연령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初期政治社會化論자들의 연구대상연령은 아동기(아동전기와 아동후기로 나누기도 함. 각각 만 5세부터 만 9세까지, 만 9세부터 만

5) David Easton & Jack 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Origin of political legitimacy」, New York: McGraw-Hill, 1969.

6) 이러한 정치관은 주로 국가에 대한 애착, 즉 애국심이나 국기와 같은 주요 상징에 대한 느낌등을 포함한다. 北韓의 어린이들에게 계획적으로 주입되는 政治社會化目標중 수령에 대한 태도등은 사회화주입단계, 즉 시기면에서 이러한 정치관 형성기에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실체로서가 아닌 신화나 상징을 통해 이미지 형성이 된다는 면에서도 이 단계의 정치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시기의 중요성은 특히 Fred I. Greenstein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13세까지)와 청년전기(青年前期)(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로 주로 아동기를 強調했다. 따라서 여러가지를 고려할때 본 研究의 대상으로서 幼年期는 北韓의 託兒所 및 유치원생연령층과 인민학교저학년층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사회화관련 北韓社會에 대한 研究<sup>12)</sup>에서는 社會化매체를 중심으로한 단계 구분을 사용했기때문에 北韓 사회내 제도를 반영하여 가정,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식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구분은 社會化담당기관과의 연계를 명확히 분석해 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는 동화류분석을 통해 사회화의 특성을 밝혀내려는데 그 초점이 있기때문에 상기의 사회화단계구분을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동화나 동시, 아동소설, 그림책(만화)등을 접하는 연령은 정확히 구분되지 않기때문이다.

- 
- 7) D. Easton and R. Hess "The Child's Political World" Midwe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I. 1962, p. 231.
  - 8) Kenneth p. Langton, political Socialization. p. 89. p. 99.(New York:Oxford Univ. Press. 1969)(김 재영, 「정치사회화론」 대왕사, 1982. p. 57에서 재인용)
  - 9) Donald D. Searing, Joel J. Schwartz and Alden E. Lind, "The Structuring Principle; political Socialization and Belief system", 1973. Ju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No. 2. pp. 415~432.
  - 10) 정세구 譯, Richard E. Dawson의, 전게서. p. 79.
  - 11) 羅炳述, 전게서 p. 3.
  - 12) 국토통일원, 「北韓靑少年의 社會化課程研究」, 1978.  
 국토통일원, 「남북한의 정치사상교육 비교연구-초·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1987.  
 국토통일원, 「北韓의 학교교육과정 분석-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 1987.

### III. 北韓의 幼年期社會化의 特性

#### 1. 幼年期社會化의 主要目標

初期政治社會化論자들이 體制維持모델의 관점에서 支持와 관련시킨 정치적 정향은 權威에 대한 정향, 권위체의 자비로움·대응성·권능, 대법원 같은 제도나 大統領, 警官과 같은 인물의 役割에 대한 애착, 정부에 대한 信賴, 정치적 정당성, 애국심등이다.<sup>1)</sup> 이러한 항목을 北韓社會에 그대로 직접 적용하면 北韓社會體制의 維持에 필요한 초기사회화 내용은 金日成(또는 당)에 대한 정향 金日成(또는 당)의 자비로움·대응성·권능, 金日成 또는 각종 政治社會制度에 대한 애착, 정무원에 대한 信賴, 社會主義 애국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직접적인 개념도식의 이질적 사회에의 적용은 문제가 많다. 특히 北韓社會는 여타의 社會主義국가들과도 이질적인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서 북한사회체제의 구성 및 유지원리를 상세히 논할 이유는 없고 또한 그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는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연구와 관련된 부분만을 고찰해 볼 때 北韓社會에서 政治社會化란 資本主義국가들에서의 政治社會化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 첫번째 이유는 국가 社會主義的 체제구성원리를 갖는 北韓社會는 정치가 그 社會의 재화의 생산과 분배 전체계를 결정짓고,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의 연관도 資本主義社會의 구성원리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숙히 연관되어 있기때문<sup>2)</sup>에 정치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권위체에의 애착, 肯定的 태도형성이외에도 그 政治體制가 지도해나가는 社會내 주요 구성원리에 대한 同調나 肯定的 態度的 形成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1) Donald D. Searing, 전게서, p. 417. 도표 참조.

2) 이점은 조선노동당헌법이나 기타 문건들 전반에서 반복되는 당의지도하에 사상무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이나 당이 출판, 교육, 언론등 독점적으로 관장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자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北韓社會의 어린이들에게 注入되는 政治社會化의 내용은 初期政治社會化論者들이 미국사회를 모델로 도출해낸 정치적 항목만을 벗어나는 보다 포괄적인 것이다. 여기서 北韓社會가 幼年期 政治社會化의 主要目標로 삼는 것을 核心 政治社會化 主題(key political socialization themes)로 正義하고 이것을 北韓社會의 幼年期社會化매체들이 갖는 유아교육목표와 더 나아가서 상위의 法律, 教育原理등을 검토함으로써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추출된 핵심정치사회화주제들은 다음 장의 동화분석의 이론적 준거틀로도 사용코자 한다.

### 1) 어린이 보육교양법

社會主義 教育目的은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를 가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社會主義 教育론에 입각한다. 社會主義 教育론의 원리는 레닌(L. E. Lenin)의 共產主義 教育의 당성 주장(1918년 8월, 教育활동 제1회 전러시아대회에서)에 근본적으로 따르는 것이다.<sup>3)</sup>

더구나 北韓의 教育은 같은 社會主義권 국가인 소련이나 중공과 비교하여서도 정치사상교육의 비중이 더 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4)</sup> 즉 “북한은 학교교육을 정치사상교육의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은 政治의 手段이며 인간은 오직 政治의 종속물로서만 存在하는 것이라고 못박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초기정치사회화의 목표도 이러한 교육일반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76년 4월 29일에 제정되었다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취학 전 어린이 즉 託兒所와 幼稚園에 다는 연령층에 대한 社會化에 관련된 법이다. 이법에 나타난 핵심적 교육목표 즉 社會化의 달성 目標은

3) 李昌夏, “北韓의 教育實態와 特徵”, 國土統一院, 1986. p. 6.

4) 文龍麟, “北韓의 學校教育課程分析—人民學校 및 高等中學校—”, 國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7. pp. 5~10.

“共產主義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革命할 革命偉業의 繼承者(제1조)” 또는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제6조)”을 키워내는 것이다. 이상의 목표하에 핵심정치사회화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제4장 제29조부터 37조사이에 抽出할 수 있다. 구체적인 政治社會化主題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남조선 인민 잊지 않기-혁명교양(제30조)
- ② 社會主義의 愛國主義(제30조, 제33조)
- ③ 集團主義(제31조)
- ④ 勞動愛好(제32조)
- ⑤ 革命的 組織的 생활기풍습득-혁명교양(제36조)

이상의 항목들이 어린이 보육교양법에 직접 명시된 핵심정치사회화주제들이다. 그러나 어린이 보육교양법이 이시기 어린이의 교육을 社會主義教育原理에 의거하여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社會主義 教育原理에 나타난 教育目標를 엄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社會主義教育原理

北韓社會가 社會主義, 共產主義의 건설을 위해 強調하고 있는 소위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중 사상적 요새 즉 의식축면을 더욱 중시하는데서 잘 나타나듯 北韓社會에서 教育은 체제의 건설과 유지를 위해 핵심적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北韓社會에서 모든 教育의 기초는 社會主義 教育原理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원리의 이론적 버팀목은 엥겔스의 「共產主義 原理」라고 주장되고 있다. “엥겔스는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실시하여야 할 教育시책으로 모든 어린이들을 어머니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시기부터 국가시설에서 국가비용으로 教育하며 教育을 공장노동과 결합시켜 진행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 教育은 「共產主義的 分배원칙을 실현하려면 사회주의 물질적 부를 풍부히 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사상혁명을 하여 사람들을 共產主義的으로 교양 개조하여야 한다.”는 데서 그 기본원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sup>5)</sup>

이 원리에 바탕을 두고 저술되었다는 1973년 著 「社會主義 教育學에 대하여」 1975년 著 「社會主義 教育型論-주체사상에 기초한-」, 1977년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제」는 北韓社會의 모든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인 「社會主義의 교육에 관한 테제」가 밝히고 있는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社會主義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社會主義 교육은 사람들을 社會와 인민을 위하여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共產主義的 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社會主義制度를 위하여 복무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세운 교육의 기본 원래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共產主義化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육에서 「당성, 노동계급성을구현할 것」과 「주체를 세울 것」,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사회 교육체계에 비추어 이같은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테제가 유년기 정치사회화의 지도원리에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社會主義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초기정치사회화와 관련하여 핵심정치사회화주제를 추출할때 이 테제의 제2절 1)의 정치사상교양을 규정하는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킬 것 즉 당 정책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해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킬 것이 일차적으로 강조되는 핵심정치사회화 주제라 할 수 있다. 이어서 革命教養을 제2의 핵심정치사회화주제라 할 수 있다. 이경우 혁명교양은 어린이가 共產主義에 대한 신념을 갖고 혁명의 미래를 낙관하도록 하는 태도로 사회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 핵심정치사회화주제는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키우도록 사회화하는 것이다. 이 테제에서 드러나는 계급의식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지주 및 자본가계급을 증오하고 착취제도를 미워하는 의식이였다. 네번째로 추출된 핵심정치사회화주제는 집단주의로 하나는

---

5)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학」, p. 425.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되는 것이지만 個人主義, 이기주의의 극복형태로서 肯定的 集團主義는 北韓社會의 단일 권력체제하에서는 전체주의로의 변질이 쉬운 것이다. 다섯째 핵심정치사회화주제도는 노동애호이다. 즉 노동에 대한 가치부여와 노동을 즐겨하는 습성 및 공동노동에의 참여에 대한 肯定的 態度를 社會化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핵심정치사회화주제는 社會主義 愛國主義이다. 초기정치사회화론자들이 기초적 정치정향이 대표적 예로 지적한 애국심과 동류의 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 愛國主義는 다른 애국심과는 배타성에서 차이가 난다. 귀속적인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社會主義제도, 노동계급정권, 자립적 민족경제와 민족문화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는 형태이다. 이어서 일곱째 핵심정치사회화주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이며 여덟째 주제로는 共產主義도덕과 社會主義의 生活樣式을 추출할 수 있다.

### 3) 朝鮮勞動黨 黨員規約

社會主義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발견되는 핵심정치사회화주제들은 조선노동당 당원규약에 있는 당원의 임무규정에서도 거의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중복의 의미는 곧 北韓社會의 教育目標 특히 政治社會化의 目標가 충실한 공산당원의 양성과 맞물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北韓의 憲法(72년 12월 27일 개정)에서도 유사한 핵심적정치사회화주제들이 北韓의 生活規範과 체제원리로서 천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 10월 13일 6차당대회 개정을 거쳐 발표된 朝鮮勞動黨 規約 제1장 중당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社會主義教育學의 주요 내용과 일치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당의 유일 사상 곧 주체사상의 체계로 확고히 무장하여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할 것(제1장 4절 1항), 둘째 당원은 노동을 애호하고 노동법률을 준수할 것(제1장 4절 5항), 셋째, 集團主義 즉 반개인주의와 반이기주의의 원칙에 철저한 것(제1장 4절 6항) 네째, 社會主義

6) 「社會主義 교육에 관한 테제」, 제2절 참조.

國家와 사회재산 애호등 社會主義 愛國主義에 앞장 설 것(제1장 4절 5항), 다섯째, 노동계급의식에 투철할 것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보다 北韓社會의 幼年期社會化는 北韓의 어린이들을 共產黨이 요구하는 정규 성원으로서 철저한 공산당원화와 일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幼年期의 特性으로 인하여 유년기의 社會化는 주체형의 革命인재로 싹터우는 과정<sup>6)</sup>으로 의도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어린이보육교양법, 社會主義教育原理, 北韓 노동당헌법 및 당원규약을 통해 핵심정치사회화주제를 검토해 보았다. 이중 공통적인 것을 추출하여 하나의 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집단주의-반개인주의, 반이기주의
  - 金日成에의 충성
  - 노동애호
  - 계급의식-반제국주의, 반착취제도
  - 혁명의식
  - 주체사상
  - 사회주의 애국주의
- 

이 주제들은 북한의 幼年期 社會化에서 핵심적으로 주입되는 政治社會化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2. 幼年期 社會化의 制度的 特性

이상의 명문화된 핵심정치사회화주제가 실제·사회화단계별로 어떻게 현현 되는가는 주체적인 사회화매체별 사회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유년기 사회화의 주요 매체로서 가정,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가 포함될 수 있다.

### 1) 가정

가정은 어린이가 이세계를 知覺하고 認識하며 判斷하고 그것을 社會에 適用하는 방법을 결정지워주는데 影響을 미치는 최초의 社會集團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매체로 간주된다. 北韓 사회내에서도 성분에 의한 가족단위의 총화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층별 가정내 社會化의 양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계층별 이질적 社會化方式은 물론 전반적인 자녀양육과 社會化方式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따라서 北韓社會에서 가정이라는 사회화매체에 국한해볼때 그속에서의 사회화의 특성은 북한사회내 가족제도의 변천을 통해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북한 사회에서의 가족제도의 변화과정을 보면 첫단계인 1945년부터 1953년까지는 가족 중심의 경제활동 유지, 봉건적 유습의 청산, 혼인과 이혼의 자유보장이 제1의 과제였고 1954년부터 1960년까지 두번째 단계에서는 가족 중심의 경제활동으로부터 社會的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1961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셋째 단계는 社會主義 경제활동 강화, 社會主義的 인간의 생산 및 가정의 혁명화가 강조되었다.”

6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지속적으로 가정이 곧 혁명의 세포가 될 것을 요구받았다는 것은 가정 자체가 思想革命의 하부 단위로 활용되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의 기능은 어린이의 정치사회화매체로서 가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혁명적 共產主義者로서의 社會化를 이루어내도록 힘써야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1961년 어머니대회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중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금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훌륭한 共產主義 건설자로 양성해낼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자녀들에 대한 교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이 훌륭한 共產主義者로 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影響을 많이 받는다. 가정을 혁명화하고 가정에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을 철저히 확립하여 가정생활 자체가 학생들에게 혁명적인 影響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sup>8)</sup>고 하였다.

따라서 北韓社會의 가정이 어린이들을 그 사회의 핵심정치사회화주체에 근거하여 사회화해내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託兒所와 幼稚園

北韓의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社會化機關은 60년이후와 이전을 분기점으로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 北韓의 유아보육교양시설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947년 6월 13일 「건국명령 제5호」인 탁아소 규칙의 제정 공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6·25전쟁을 전후로 전제민구호대책에 관한 내각 결정에 의해 애육원과 육아원, 유아보육원등이 확장, 신설되었다.<sup>9)</sup> 1960년까지 확대된 탁아소시설에 위탁된 어린이의 비중은 동연령기 어린이의 64%였다.<sup>10)</sup> 그러나 이때까지 어린이의 보육기능만이 강조되었고 政治社會化매체로서의 기능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1960년대 들어오면서 가족기능에서의 혁명인재배출이 강조되는 것과 같이 유치원, 탁아소에서도 정치교양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띈다.<sup>11)</sup>

어린이의 정치사회화는 소위 「혁명적인 어린이 교육교양」의 틀내에서 이루어지는 듯하다. 이것은 “학교전 교육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 교양의 첫 공정이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상이 형성되고 지적발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어린 시절에 올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sup>12)</sup>는 金日成의

7) 평화통일연구소, 「북한개요」, 1986, p. 78.

8) 김일성, 「社會主義 교육학」,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한 연설”(1961. 11. 16) pp. 96~124.

저작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혁명적인 어린이의 기본적인 품성은 소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 대한 충실성”이란 징표로 표상된다고 하는 지도논리에 입각한다는 것이 덧붙여지고 있다.

이후 1972년 11년제의무교육결정에 따라 유치원 1년이 의무교육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의 政治社會化問題는 보다 강도있게 體制내로 編入되었다. 北韓 사회에서 유아보육 및 教育機關에 수용된 어린이의 비율은 명확치 않지만 1970년 현재 학령전 어린이의 70%이상이 탁아소와 유치원에 수용되었다<sup>13)</sup>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유치원 의무교육제 실시에 따라 그 비율은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비율을 추산할 수 없지만 1981년 현재 유치원과 탁아소 학생수는 350만명<sup>14)</sup>으로 발표되었다.

北韓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행하는 政治社會化의 內容을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 보육교양지도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용된 분석자료는 북한의 교육도서출판사에서 발행했고 일본의 학우서방에서 번안출판된 「유치원 교양원 참고-유치원 초급반용」(1966년 판)이다.<sup>15)</sup> 이 책은 幼稚園 教育의 담당 主體인 교양원의 교재안으로 전체의 구성은 ‘우리말’, ‘노래유희’, ‘운동유희’, ‘셈’, ‘노래’, ‘도화및 공작’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중 政治社會化의 중심 교과라고 볼 수 있는 ‘우리말’교과는 21개과의 이야기 16개과의 동요-동시, 25개과의 자연관찰로 구성된다. 먼저 이야기 21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金日成의 어린이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는 과가 21개항중 8개항이나 되었다. 그외에 核心政治社會化主題와 聯關된 勞動愛好를 내용으로 한 과가 2개, 어린이 유격대활동을 다룬 과가 2개, 남한을 비참한 기아상태로 묘사하고 미제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과가 4개, 인민군대의 고마움을 주지시키는 과가 1개항으로 총 9개항이나 되었다. 그외에는 生活規範, 德性등의 내용을

9) 김재한, 「어린이 보육교양경험」, 198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p. 13~14.

10) 김재한, 상계서, p. 17.

11) 이점은 1966년 10월 김일성의 전국보육원 교양원 대회발표연설에서도 강조되고 있다(고영복 “북한청소년 사회화추세” 국토통일원 「북한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1978, p. 207. 참조)

담고 있는 것이 7개항이었다.’ 따라서 ‘우리말’ 교과와 지도내용은 金日成에의 충성 및 혁명의식 鼓吹 등 北韓社會의 政治社會化目標을 強力히 反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北韓의 幼稚園 教育課程에서 ‘金日成어린시절 따라 배우기’ 교육이 부과된다<sup>12)</sup>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말’ 學習課程에서도 그들식의 충성스런 혁명인재양성화가 주된 教育目標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傾向은 東요·동시학습내용에서도 강도는 다소 약하지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東요·동시 16편중 金日成에의 충성심을 鼓吹하는 내용이 3편, 노동의 귀중함, 노동계급의 讚揚이 4편 集團主義를 지도하는 내용이 1편이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참 기쁜 날’, ‘백두산’이란 동시를 암송케하며 學習目標로 金日成에의 尊敬心培養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오늘은 참 기쁜 날/원수님이 나신 날/진달래는 방긋 웃고/종달새도 노래해요” 또는 “백두산은 높은 산/제일 높은 산/너도 나도 잘 아는/우리나라 산/원수님이 왜놈을/때려 보시고/우리나라 찾아 주신/자랑 높은 산”이라고 金日成의 이미지를 어린이들의 心像에 담도록 한다. 특히 동지도서의 學業進行 指針을 보면 公高化 단계의 실례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모두 잘 읽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게 유치원에서 노래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은 누구의 덕분인지 아세요? 그것은 金日成 원수님이 나쁜 일본놈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본놈들은 정말 우리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金日成 원수님은 유격대아저씨를 거느리고 왜놈들을 쳐 부셨지요…… 모두 《金日成 원수님 고맙습니다》하고 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보고싶은 원수님》 노래를 부르게 한다.<sup>17)</sup>

그밖의 ‘운동유희’, ‘셈’, ‘노래’, ‘도화 및 공작’ 교과도 곳곳에서 金日成에의

12) 김일성, 「김일성저작법 32권」 p. 398.

13) 김재한, 상계서, p. 18.

14) 이창하, 「北韓의 教育實態와 特徵」 국토통일원, 1986, p. 46.

15) 이 책은 조총련계 재일동포사회의 유아교육지도서로 활용된 것으로 보여 북한사회내 유아교육지도서는 아니나 발행처가 북한의 교육도서출판사인 것을 미루어 이 내용이 北韓社會에서도 이용되었을 것은 거의 확실하다.

16) 이계희, 「北韓의 사상정책과 정치교육」, 국토통일원 「민족재결합의 모색」 p. 70.

충성심 배양, 미제에 대한 증오심과 혁명의식 배양, 集團主義 意識 및 노동애호심배양등 核心政治社會化主題가 체계적으로 지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실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아교육기관들이 어린이들에게 정치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支持를 내면화시키도록 하고 있고 북한식의 共產主義체제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政治社會化主題를 조직적으로 社會化해나간다는 것이다.

### 3) 人民學校

北韓의 어린이들은 만6세가 되면 4년제 人民學校에 入學한다. 人民學校라는 社會化매체가 주도되는 政治社會化課程은 北韓社會의 教育行政管理 方式과 교육목표의 결정 및 시행방식을 고려하여 밝혀 낼 수 있다.

첫째 교육의 틀로서 教育行政 관리방식이 철저히 노동당의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즉 北韓의 학교 행정조직은 “학교장 밑에 경리주임, 교무주임이 있고 학생들을 담임 교원이 담당토록 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학교별로 당위원회와 초급 당 社會團體등이 組織되어 있음으로 종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횡적인 면까지도 철저히 노동당의 통제하에 있다.<sup>17)</sup>

둘째로 教育目標의 결정 및 시행방식을 보면 당에서 결정된 「社會主義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거한 教育目的과 원리에 근본적으로 의거하고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추어 교육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이렇게 당에 의해 결정된 교육 원리나 목표에 따라 위에서 부터 단일의 교과과정이 결정되고 교재안 및 교과서등이 제작되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면에서도 당의 통제는 전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점들을 고려할때 북한의 인민학교의 정치사회학내용은 당이 요구하는 주체형의 혁명인재의 배출로 모아진다.

인민학교내 소년단 활동등 組織活動을 차지하더라도 실제 교재로 학습되는

17) 「유치원 교양원 참고서-유치원 초급반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발행, 동경, 학우서방 번안 p. 33.

18) 이창하, 전계서, p. 22.

교과내용만을 分析하더라도 이러한 지향성은 매우 뚜렷하다.

인민학교 교과과정에서 직접적인 政治社會化를 의도하는 「敬愛하는 首領 金日成 원수님 어린시절」, 「특강」, 「共產主義道德」등 과목이 배정되어 있고<sup>19)</sup> 국어교과과정에서도 이에 못지 않는 政治社會化가 의도되고 있다.<sup>20)</sup>

기존 연구에 의거해서 인민학교 국어교과내 政治社會化관련 내용의 교과비중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표1> 참조)

<표1>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사회화관련 교과의 비율\*\*

정	주요내용별	학년별				계	비율(%)	
		1	2	3	4			
치 사 회 관 련 교 과	김일성 우상화 및 충성심 고무	8	14	11	14	47	29.2	80.1
	김정일 우상화 및 충성심 고무	8	9	13	12	42	26.1	
	혁명의식 및 적개심고무	5	8	3	5	21	13.0	
	공산주의 도덕교양	2	5	8	4	19	11.8	
기 타	순수언어생활	9	13	5	5	32	19.9	
계		32	49	40	40	161	100	

\*\*문용린, 전개서 p. 58에 의거 제작성했음

\*분석교과서는 1985년판(평양교육도서출판사 발행)의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임

이표에서 혁명의식 및 적개심고무 항목은 核心政治社會化主題중 革命意識교양 주제 및 계급교양주제에 각각 對應되며 共產主義道德 교양항목은 핵심정치사회화주제중 社會主義애국심 및 집단주의등에 포함된 것이었다.

19) 문용린, 「북한의 학교교육과정 분석」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7, pp. 15~17.

20) “北韓 인민학교 국어교과서 내용분석-정치사상교육실태중심-” 문용린, 전개서, pp. 51~73.

21) 김일성의 「社會主義 敎育학」 중 “소년단원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1971년 6월 6일자 연설 이 소년단 활동의 목적과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설문중 정치사회화관련 내용은 이 글에서 핵심정치사회화 주제로 선별된 항목들을 포함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人民學校에서도 학습을 통해 北韓社會의 體制維持를 위한 核心정치사회화주제를 注入시키는 特性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學習課程이외에도 소년단 조직생활을 통한 정치사회화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사로청조직과 공산당원조직과의 개선적 연계를 이룬 소년단활동을 통한 정치사회화과정은 학습활동이상의 영향력을 갖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소년단내의 정치사회화내용 역시 이 研究에서 核心정치사회화주제로 規定된 내용과 거의 類似한 것이다.<sup>21)</sup>

이상에서 北韓의 人民學校는 학생들을 정치사회화시켜내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있고 이 정치사회화의 내용은 김일성, 김정일권력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무조건적 支持등 북한식 共產主義體制維持에 필요한 核心정치사회화주제의 주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동화분석을 통해 본 幼年期社會化

### 1. 分析方法

#### 1) 分析의 意義

內容分析은 커뮤니케이션내용에 대한 과학적 分析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기초적인 人間의 相互作用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研究는 人間의 歷史, 形態, 思想, 藝術, 制度를 研究하는데 기본이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카트라이트의 正義에 따르면<sup>1)</sup> 集團규범, 가치, 태도, 기술의 형성과 전이는 거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手段으로 할 뿐 아니라 教育 역시 언어에 의해 매개된 통제의 행사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研究의 동화에 대한 內容分析은 동화라는 매체를 통해 北韓社會에서 政治社會化를 목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內容을 分析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北韓 동화의 內容分析은 그 社會의 유년기사회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증진 이외에도 이제까지 연구되지 않은 北韓의 아동문학에 대한 테마분석이라는 부수적 결과도 기대된다.

특히 北韓社會의 유년기사회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동화의 내용분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社會에 대한 社會學的 연구는 分析對象이 되는 사회에 대한 直接的 觀察의 부재는 물론 間接的 문헌자료면에서도 입수의 한계 및 북한사회자체의 정보산출·유통의 제한에 따른 分析資料의 부족 때문에 대안적 분석자료로서 문학작품의 내용분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둘째, 北韓의 동화는 北韓社會가 어린이에게 부과하려는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내며 社會化와 關聯해 볼때 中心的 社會化主題를 그 테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幼年期

---

1) Holsti ole,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pp. 1~2.

社會化研究에 큰 도움을 준다. 北韓의 동화는 社會主義 문학론에 입각하여 창작되는데 北韓의 社會主義文學이란 노동당의 정책을 구현하며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복무하도록 규정받고 있다. 따라서 동화에서도 어린이들에게 형성시키려는 세계관이나 이념이 뚜렷히 나타난다. 北韓의 아동문학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社會主義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무한히 사랑하며 온갖 계급적 원수들을 반대하며 건결히 鬪爭하는 지덕체를 갖춘 새형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건설자로 키우는 사상고양의 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문학 작품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北韓社會의 유년기 정치사회화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세째, 北韓社會의 저술 및 출판의 體系가 일관된 형태도 제도화<sup>3)</sup>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기구인 당의 사회화전략과 동화의 저술 출판이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전투적 사상 무기”라고 스스로 규정한<sup>4)</sup> 출판매체를 통한 어린이의 사회화방식을 밝혀봄으로써 북한 사회내 전체의 유년기 사회화방식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동화분석은 북한의 아동문학에 대한 초보적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아동문학연구에 대한 기여측면에서 볼때 현여건에서 입수 가능한 작품등을 일차적으로 정리하고 주제별 분류를 해냄으로써 작품의 경향성을 고찰해 본다.

## 2) 分析方法

內容分析의 요건은 客觀性, 體系性, 一般性이다. 본 研究의 동화분석의 단위는 연설문분석과 달리 주제(Thema)이다. 왜냐하면 동화는 문학작품의

2)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1044.

3) 북한 사회에서 출판사업은 분야별로 문화된 출판사들에 의해 관장되고 있다. 출판사는 각각 당및 사상관계 분야의 저서, 과학기술관계의 저서, 교육문화 및 기타의 저서로 구분되 연후에 다시 출판대상 독자층과 저서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세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 북한의 아동소설동화의 출판은금성청년출판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출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선중앙연감, 1971년도판. 평양, P.272.



일반적 특성에 더하여 주로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나 항목의 분석이 가능하지도, 적합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分析段階에서 첫번째 작업은 분석자가 대상이 되는 동화작품을 독해하고 그 작품이 암시하거나 명시하는 주제를 선별하였다.

한편 본 研究의 内容分析의 과학적 요건은 일정의 限界를 가지고 있다. 内容分析의 과학적 요건을 객관성, 체계성, 일반성의 면에서 고려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먼저 객관성측면에서 볼때 분석단위의 선별과정에서 분석 대상의 작품내용보다도 분석자의 주관적 경향성이 反映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일련의 뚜렷한 규정의 의거할 필요가 있다.<sup>5)</sup> 그런데 본 내용분석 과정에서는 3인정도의 분석자가 동일 작품을 읽고 중심 주제를 판별해 내 3자간의 일치도를 검토하는 등등 分析者의 주관적 오류를 극복할 장치가 미비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내에서 동화의 핵심 주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각작품의 創作者가 명시적으로 드러낸 주제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실제 작품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각 작품들은 거의 결말 부분에서 주제가 되는 메시지가 壓縮하여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제선정과정에서 分析者가 혼란에 빠지거나 자의적 결정을 할 소지는 거의 없었다. 즉 홀스티의 内容分析의 信賴性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인 텍스트에서 발견해 낼 카테고리의 명료성이 매우 강했다. 따라서 주제의 결정은 작품의 결말부분에서 강조된 압축된 메시지 달리 말하자면 전편의 内容을 결말 짓는 문장을 찾아내어 그 문장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두번째의 원칙은 작품의 결말 부분에 압축된 메시지를 갖는 문장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번 반복되는 메시지를 추출하여 중심주제로 결정하였다.

본 研究의 分析對象이 社會主義 문학의 범주로서 사상성이 명쾌함 부각되어 있고 어린이를 독자층으로 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주제 전달이

---

5) Hoosti ole, 전제서, P.135.

선명했기 때문에 주제 선정에서 분석자의 자의적 판단이 최소화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内容分析의 체계성 문제를 검토해 보면, 체계성이란 내용 또는 카테고리의 선택(inclusion)과 배제(exclusion)가 일관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分析對象이 되는 内容(즉 작품들)인 자의적으로 선택되고 배제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특정의 절차에 따라 分析資料인 文獻이나 기사, 연설문등의 특성을 빠짐없이 검토하였느냐가 문제된다. 본 분석의 경우 분석 대상인 북한 동화류가 북한내에서 출판, 유통된 동화류중 어느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가 문제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동화류가 입수과정에서 특정 기준에 의해 선별되지 않았고 무작위적으로 수집된 것이었으며 분석동화의 양이 280여편에 달하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체계성에서의 한계가 어느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内容分析의 요건은 일반성인데 이 측면은 하자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内容分析의 요건으로서 일반성은 分析資料에서의 발견물이 이론적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며 이론적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分析對象이 되는 資料를 분석해내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즉 内容分析이 인간의 상호작용의 기본 형태인 커뮤니케이션 内容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分析대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신자 또는 발신자와 연관이나 그 커뮤니케이션을 담은 자료의 다른 속성과의 관련을 무시하고 순수히 있는 그대로 把握하고 기술한다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分析課程은 북한 사회의 유년기 社會化의 特性 抽出을 염두에 두고 北韓社會에서 공표된(즉 수신자의) 핵심정치사회화주제가 동화류의 주제(thema)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밝혀낼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헌법, 당원규약, 社會主義 教育原理,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된

---

6) Holsti ole, 전게서, P.5.

핵심정치사회화주제가 동화속에 발현되는 강도와 형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3) 분석자료

본 연구분석의 대상이 된 자료는 총 57책, 275편의 동화류이다. 세부적으로는 동화(약간의 서사시 및 희곡포함), 28책 197편, 아동소설 13책 45편, 아동그림책(만화) 14책 33편이다.

여기서 동화의 아동소설을 독서연령층에서의 차이를 반영한 구분일 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구분된다. 동화는 주로 우화수법을 동원하거나 천연색 그림을 곁들여 유치원생 또는 인민학교 1, 2학년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전체의 줄거리도 간단하고 분량도 적은데 반해 아동소설은 북한 사회내 아동문학의 한 장르로 취급되어 주로 소년단 활동·연령층을 대상으로 현실세계에서 소재를 취하고 중편 또는 장편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이 일반적이었다.

아동소설과 동화의 구분은 北韓 문학잡지인 월간지 「아동문학」<sup>7)</sup>에서도 별개의 장르로 구분되고 있어 이 글에서도 그와 같은 분류에 근거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동그림책으로 분류된 것은 남한사회의 만화에 해당된 것이다. ‘그림책’이란 북한사회에서의 通常의 분류명칭이다. 이것은 보다 엄밀한 규정성에 준하여 창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작품내용분석에서 적시되겠지만 아동그림책(만화)은 抗日武裝 鬭爭記와 6·25전쟁시기(북한식 표현으로는 조선 해방투쟁기로 표현됨)에 아동단원과 어린이들의 鬭爭活動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다.

分析作品의 연대별 분포를 보면 解放이후 부터 1950년대까지 작품이 12편, 60년대 작품이 4편, 70년대 작품이 120편, 80년대 작품이 139편이다.

---

7) 「아동문학」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동화, 동시, 동요, 아동소설, 수필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창작작품발표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듯하다. 특기할점은 작가들의 작품발표외에도 아마추어성인작가의 작품발표의 장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아동들의작품도 실려있다. 89년6월 현재통권410권째 발행중인 월간지이다.

분석작품의 년도별 분포

	동 화	아 동 소 설	아동그림책 (만 화)	계
해방이후 ~1950년대말	12	-	-	12
1960년대	2	2	-	4
1970년대	107	10	3	120
1980	76	33	30	139
계	197	45	33	275

## 2. 分析結果

內容分析에서 고려한 核心政治社會化主題는 앞에서 검토한 초기정치사회화론에 입각하고 北韓社會에서 공표된 政治社會化 核心主題를 종합하였다.

선별된 주제는 ① 集團主義 ② 金日成에의 忠誠心 ③ 노동애호 ④ 계급교양 ⑤ 社會主義 愛國主義 ⑥ 주체사상(自主精神) ⑦ 남한에 대한 태도 및 미제국주위에 대한 태도 ⑧ 혁명성 교양등이다. 앞서 檢討한 北韓의 조선노동당 당원규약, 북한헌법, 社會主義 교육학의 구현목표와 어린이 보육교양법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된 항목중 누락된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의 교양과 社會主義 준법사상 교양이다. 이 두 항목은 유년기를 정치사회화를 싣티우는 단계로 간주하기 때문인지 전체적인 분석에서 눈에 띄지 않은 부분이였다.

內容分析은 우선 장르별로 대별한 연후에 중심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경우에 따라서 주제가 하나이상 다수로 추출되는 작품이 가끔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분류의 편의상 가장 강조되는 단일의 정치사회화 핵심주제를 채택하였다.

### 가. 동화

분석대상이 된 동화는 총 56책 197편이다. 총 197편에 나타난 主題의 發現 빈도를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集團主義를 중심 테마로 強調한 작품이 총 39편으로 전체 동화 197편중 19.8%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서 金日成에의 충성심 교양을 내건 작품은 총 22편으로 11.2%를 차지했으며 노동애호 즉 생산 및 노동의 가치를 값있게 여기고 노동자를 讚揚하는 내용이 전체의 5.1%는 10편의 중심 테마로 부각되었다. 이어서 북한사회에서 계급교양이라 불리우는 '원썩'에 대한 경각심, '원썩'의 악랄한 본성을 통해 과거 지주제도와 착취제도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려는 내용을 담은 동화는 총 35편으로 전체동화의 17.8%에 달했다. 그러나 혁명교양은 총 197편의 4.6%인 9편의 중심테마였으며 社會主義 애국주의를 제일의 주제로 내건 작품은 전체 동화류의 7.6%인 15편으로

집계되었다. 그밖에 주체사상을 심으려는 의도를 갖은 동화류는 전체의 6.6%인 13편이나 되었고 남한에 대한 태도항목은 타주제, 예를 들면 계급교양 또는 혁명교양과 결합되거나 社會主義 애국주의와 결합되어 ‘부주제로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북한식의 해방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운 동화작품은 단 1편이 발견되었다.(<표2> 참조)

〈표2〉 동화중심주제의 발현상태

		빈도(편)	비율(%)
핵심정치사회화주제	집단주의	39	19.8
	계급교양	37	18.8
	김일성애의 충성	22	11.2
	사회주의 애국주의	13	6.6
	주체사상	13	6.6
	노동애호	10	5.1
	혁명교양	9	4.6
	남한에 대한 태도	1	0.5
	비정치사회화주제	53	26.9
계	197	100	

이를 요약하면 政治社會化 核心主題를 분류된 集團主義, 金日成애의 충성, 노동애호, 계급교양, 社會主義 애국주의, 주체사상, 남한에 대한 태도 주입, 혁명교양등을 중심테마로 한 동화작품은 총 144편이나 되어서 전체 분석대상 동화의 73.1%를 차지했다. 그러나 北韓社會의 文學作品이 획일적인 정치사회화의 선전도구도의 기능을 요구받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적어도 전체의 26.9%인 53편이 정치사회화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각 핵심정치사회화주제별로 작품속에서 어떻게 주제들이 발현되며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치사회화주제

### 가) 集團主義

북한의 아동작품중 동화에서는 정치사회화핵심주제중 집단주의가 가장 많이 강조되었다. 「社會主義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북한의 집단주의에 대한 개념정의는 “社會主義 共產主義 社會生活의 기초이며 共產主義者들의 활동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으로 각 개인이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타적으로 나서서 투쟁하도록 한다는 사회화목표와 연결된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집단주의를 작품의 테마로 규정할 수 있는 작품수는 총 39편으로 5작품중1작품꼴의 빈도로 나타났다.

이 집단주의는 상호 연관된 6가지의 하위 항목으로 나뉘어 나타나는데, 첫째는 개인적 자만의 공명심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는 것, 둘째 집단의 협동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업적)는 한 개인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 셋째 집단내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넷째 이기주의를 죄악시하고 이타적 태도를 갖을 것. 다섯째 집단의 힘에 의해 자주적으로 자신의 마을과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점, 여섯째 집단의 것이 곧 자기의 것이며 자기의 것이 곧 집단의 소유라며 집단과 개인의 소유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각 ① 개인의 증명심 억제 ② 집단적 성취 ③ 집단내 책임강조 ④ 반이기주의 ⑤ 집단적 자주방위 ⑥ 집단과 개인의 소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하위 항목의 발현 빈도를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①번과 ②번이다.

②번의 「집단적 성취」를 강조한 작품은 집단주의로 분류된 39편중 9편이었다.

“그들이 내는 방울소리는 참으로 이상하였습니다. 혼자서 날아가면 들리지

않다가도 여럿이 함께 깃을 치며 날아가며 들리지 않다가도 여럿이 함께 깃을 치며 날아가면 달랑 달랑 울리었습니다……”

(허원길, “날개에 달린 방울”, 「꿀샘 솟는 향아리」,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편).

“누구나 다 한두가지씩 남에게 없는 재간이 없고 이 재간을 합쳐야 큰 힘과 빛을 낸다는 것을 난 이제야 깨달았어……”

(김신복, “의좋은 제동무” 김신복 저 「메토끼와 나팔주둥이」,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잘룩아 이제 똑똑히 알았니. 힘을 합친다는 건 하나에다 하나를 합치면 둘이 되는 그것과는 다르단다. 여럿이 힘과 지혜를 합치면 백배도 되고 천배도 될 수 있단다. 뭉친 힘. 그것은 하늘보다 땅 보다도 더 큰거야……”  
( 김우영, “잘룩이는 무엇을 몰랐나” 동화집, 「빨간 금붕어」 , 1977, 평양금성청년출판사펴냄, 변각 학우서방, 동경)

이상에서 드러나듯 집단적 협동을 통한 성취의 위력을 강조하는 작품을 통한 성취의 위력을 강조하는 작품은 ① 개인의 공명심 억제 항목과 매우 밀접히 연관될 수 있다. 개인의 공명심 억제를 중심주제로 한 동화는 사적 공명심에 사로잡혀 집단적 성취의 결과를 자기 개인의 업적으로 내세우려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다 집단적 성취를 그르치게 하는 형태를 경계시키는 내용으로 일관된다. 가령 예를 들면 황령아의 “수리산의 산들바람” (「꿀샘솟는 향아리」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에서는 보다 큰일을 해내고자 자신이 사는 숲을 떠나 보람찬 일을 찾아나선 산들이가 결국은 “…알았어, 이제 알았다. 이세상에 큰일 작은 일이란 따로 없구나 이세상의 모든 일은 다 천리마 나라를 빛내는 큰일들과 잇달아 있구나”라고 깨우친다든지 같은 책주의 “하늘로 떠오른 감장 개미”(김박문글)에서 칭찬이나 명예를 바라고 일하려는



생각, 그것은 잘못된 생각, 동산을 위해 한مام으로 일할-때 참된 명예는 그속에서 빛남을 우리 모두명심하자”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개인의공명심의 해악을 지적한다. 또한 박인범의“빨간 구두”(「행복의 동산」 1981,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발행)에서는 오른쪽 구두짝과 왼쪽 구두짝이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우기다 결국 서로 자만심과 공명심에 빠져서는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며 반성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한춘선의 “파란 고무풍선”(「타발 많은 토끼」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박상용의 “돌아온 거부기”(「타발 많은 토끼」)에서도 뒤늦게 자만을 반성하는 식으로 즐거리를 엮어냄으로써 개인적 자만, 공명심의 억제를중심주제로 부가시키고 있다.

한편 「집단내 책임강조」의 항목에는 39편중 약 17.9%인 7편의 동화가 해당되었다. 집단내 책임의 강조는 남한사회의 유치원 사회성영역 교육의 목표로 강조되고 있는 책임감 항목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사회를 집단중심으로 유지키 위해 집단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역할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낙서의 “참게네 집게 발”(「막내 두깨비의 갑옷」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은 집단적성실성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참게야, 명예란 것들은 특별한 곳에있는 것이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곳에 있는 거란다…~ 또한 원오홍의→빨간 금붕어~(「빨간 금붕어」, 1977, 금성청년출판사 펴냄 1979 학우서방번각)도 집단내 개인의 책임감을주제로 내건 작품이며 조상철의 →도토리 형제~(「사슴과 호랑이」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도 자기의 본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거기가야 바람을 막고, 사태를 막으며 보람있는 나무로 될텐데(조상철의 “도토리 형제”) 또한 황령아의 “사설쟁이 술새”(「타발 많은 토끼」)역시 “남의 일 하찮게 여겨 사설만 말고 제일이나 꾸준히 하였더라면 털벌레를 모조리 잡아 치운 보람도 동산에 소문나게 빛을 냈을 걸…이라는 술새의

반성도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네번째 하위항목인 반개인주의, 반이기주의들 중심주제로 삼는 동화는 7편으로 집단주의라는 핵심정치사회화 주제를 전달하려는 동화전체의 17.9%가 이 하위항목에 속한다.

배풍의 “곰의 욕심자루”(「조롱박과쭈그렁 박」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는 이기주의에 빠진 곰이 승냥이라살의 간교에 말려들어 목숨까지 잃을 뻔하였다는 우화를 통해 사리사욕의 억제를 외치고 있다. 또한 박상용의 “알려지지 않은 약썸”(「신기한 썸물」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반이기주의를 중심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즉 “다른사람을 위한 깨끗한 양심은 영원히 전해지지만 자기만을 아는 얼룩진 마음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알려지지 않은 썸물”)라는 식의 이타주의에 대한 강조는 타인에 대한 양보와 헌신만이 영원한 살길이라는 메시지로 연결되는 것이다. 김영삼의 “흙으로 만든 밤”(「막내 두꺼비의 갑옷」 1983,평양, 금성청년출판사)은 다음과 같이 반이기주의적 주제를 전달한다.

“...너희들은 어려운 때 일수록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면 죽을 구렁텅이에서도 살아나게 되구 제발 구멍만 찾아 내기를 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곳에서두 죽게 된다는 것 아직 못 깨달은 게로구나...”

이밖에 집단주의에 포함되는 항목인 ⑤집단적 자주방위를 주제로 한 집단의 힘에 의한 자위의 강조는 주체사상중 자위 즉 자주 국방과 유사한것이나 집단의 힘에 의한 측면이 강조되어 집단주의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아무리 작고 약한 물고기들 도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힘으로 싸운다면 그 어떤 큰 원썬도 때려부실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고기들은 이 바다메기들에게 <바다 고슴도치>라는 영예로운 새이름을 하나 더 달아주면 그들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메기네들을 따라배워 모두가 다 원썬을 치는 무서운 힘으로 될 것을 굳게 마음 다지었습니다...”

(김신복, “바다고슴도치” 「행복의 동산」 ) “힘을 합쳐 슬기와 피를 쓰면 그 어떤 무서운 힘을 가진 원썩도 이길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나도 깨달았네… 흉악한 원썩을 요절 낸 수달들은 너무 기뻐 춤을 덩실 덩실 추었습니다. 이들은 밤을 꼬박 새우며 숨구멍두리에 얼음 함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몇십마리가 달라 붙어 잠시도 쉬지않고 뜨거운 입김을 확확 내 뿜어 녹이기도 하고…(김신복, “수달 북실이의 슬기”, 「빨간 금붕어」

이러한 집단적 자주 방위는 장영환의“사슴과 호랑이”(「사슴과 호랑이」 ,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난 김신복의 “우쫄대던 봉봉이”(「매토끼의 나팔 주둥이」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 김신복의 “오이밭의 고슴도치(「빨간금붕어」)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중심 테마이다.

끝으로 집단주의의 6번째 하위항목인집단과 개인의 소유원리는 장영희의“우리의 것과 나의 것”(「바닷속의 무지개 동산」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달된다.

“우리의 것과 나의 것은 사실상 같은 말 입니다. 우리것 속에는 나의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것이 많고 좋아야 나의 것도 많고 좋아집니다. 우리의 것이 많고 좋게되 자연많이 만들기도 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은 간수를 잘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내가 마음대로 처리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것은 혼자서 마음대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주제는 많은 부분이 사유가 아닌 집단적 소유형태를 취한 사회체제에서 사적 소유욕의 제한 뿐만 아니라 집단적 소유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사회화시키려는 바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남한 사회에서 유치원 교육목표중 사회영역의 학습과제인 ‘타인과 자신의 소유물 구분하는 법을 사회화시키는 것’과큰 대조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것이 곧체제의 이질성일 것이다.

마운홍의 “강물에 흘러가는 밤자루”(「빨간 금붕어」 )는 보다 분명히 개인의

소유와 집단의 소유 관계를 전하려 시도하는 작품이다. “...내가 눈뜬 소경이었구나 꼭 제주머니에 있는 것만 내것인 줄 알았으니...동산의 모든 물건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그속에 다 나를 위한 것도 들어 있는데야 욕심을 부릴 필요가 무언가! ...

이상에서 북한 동화류에서 집단주의라는 핵심정치사회화주제가 발현하는 형태와 강도를 살펴보았다. 북한 어린이들에게주입되는 사회화내용을 사회체제 유지와연관시킬때 분석된 동화중연관시킬때 분석된 동화중 73.1%가 직접적으로 핵심정치사회화주제를 중심 테마로 삼고 있었음을 알수 있었는데 이중 가장 비중있게 주입되는 것이 집단주의라는 주제이다. 핵심정치사회화주제를 중심주제로 하는 작품중에서 집단주의 테마의 작품은 4편당 1편인 꼴로 그 비중은 전체의 26.1% 였다.

동화를 통해 주입해내려는 집단주의의내용은 초보적 형태의 집단주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동화에 나타난 집단주의는 개인의 명예나 공명심의 자제위에 협동하여야 개인이 이를 수 있는 성취보다 훨씬 큰 성취를 이뤄낼 수 있고이것은 작은 힘을 모아 엄청난 힘을 갖게되며 무슨일이든-훨씬 강한 침략자, 착취자의 퇴취까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의 유지를 위해서는 집단내 각각의 위치에서 개인의 자기의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이기주의를 버리고 양보와 헌신의 이타주의적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소유문제에서는 집단의 것이 곧 개인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리될 수 있는 집단주의라는 사회화의 주제는 그자체로서는 사회주의 휴머니즘과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가 곧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활동의 원칙으로 전화될때 물화가 일어나며 개인의 당이 도구 집단의도구-더나아가 북한사회의 일인 지배체제에서 특정인의 도구-로 전락할 여지가 있으며 개인의 자율에 의해서가 아니라타율에 의해 개인과 집단이 연결고리를 맺음으로써 사회체제가 개인을 수인(囚人)화하게

되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다<sup>8)</sup>

#### 나) 김일성의 충성

아동소설, 아동그림책과 달리 유치원생이 접하게 되는 동화작품에서는 김일성에의 충성심을 핵심주제로 삼는 작품이 흔하지 않았다. 분석대상이된 동화중 1책 22편의 동화만이 직접 김일성에의 존경과 흠모를 중심주제로 삼는 것이었다. 그밖의 동화집의 경우 책의 속표지에 김일성(간혹 김정일이 대신될 경우도 있음)에의 헌사나 존경을 표하는 작품집이 눈에 띄기는 하나 창작과정에서 김일성에의 충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았다.

위에서 든 1권의 책이란 1979년 금성청년출판사에서 편(엮고)하고 동경의 조선 청년사가 번각 발행한 「백두산의 장수벌」이다. 여기에는 22편의 독립된 동화가 실려있고 22편 전부가 김일성의 항일 유격담이다. 이 유격담은 성인, 고등 중학생용으로 엮어진 「백두산의 전설」(1981, 평양, 근로단체 출판사)을 보다 과장하고 읽기 쉽게 한 것이다. 「백두산의 장수벌」중 김일성은 거의 전능 전지의 신(神)으로 묘사되고 있다.

“바로 이순간이었습니다. 놈들을 쥐락 펴락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에 대고 총 한방을 쏘시었습니다. 그러자 산에 있던 수많은 나무들이 군사가 되어 줄을 지어 원썩놈들 속으로 부리나케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개의 가랑잎과 돌들은 총칼이 되고 포탄이 되어 웅웅 소리를 내며 줄지어 날아가 《토벌대》 놈들이 머리우에 떨어졌습니다...”

(“김일성 장군님은. 술방울도 폭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신다” 중에서) 혹은 “백두산의 슬기와 용맹을 타고 나시여 천지의 맑은 물을 마시며 도를 닦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땅을주름 잡으시며 한걸음에 천리를 달리시며 왜놈을 때려부신다오...”(“조선군대가 나왔다”중에서) 또한 “어찌다 겨우 살아남은 놈들은 《김일성장군이 하늘땅의 조화도 마음대로 하신다더니

8) 이러한 논거는 사회주의에서 무산계급이 공산주의당의 사상과 정책에서 부여된 권한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 도처에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사회주의 휴머니즘?」에리히프롬(편), 사계절(역), 「사회주의 인간론」 1982, p.p.82-90.

과연 비를 불러 우리가 눈도 못뜨게 하는구나! 다 녹아나기전에 내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모두 겁에 질려 제가꿈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날씨를 내다보신다”중에서)

이렇게 전지 전능의 위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 김일성은 곧 흠모와 존경의 대상으로 강조된다. 동일한 책중 “10년 묵은 꿀로 만든 보약”은 흠모의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김일성의 존경과 숭앙적 태도를 사회화해내고 있다.

#### 다)노동애호

핵심적 정치 사회화주제로서 노동 애호는 (조선 노동당규약이나 북한의 헌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체제, 어린이보양교육법등에서)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중하나로 간주된 것이다. 이 문건에서 드러난 노동애호주제의 내용은 노동을 신성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노동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이다.

분석한 동화작품중 노동애호를 중심주제로한 작품의 수는 총10편으로 전체 동화작품수의 5.1%이며 정치사회화주제의 동화작품수 144편의 6.9%였다. 노동애호의 주제는 ①실천없는 허장성세와 나라의 경고와②노동에 의한 생산의 귀중함 및 노동, 노동자의 찬양이란 하위 주제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노동애호를 주제로 한 작품중5편이 ①의 하위주제를 또 다른 5편은 ②의하위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실천없는 허장성세와 나태의 결과를 통해 노동애호심을 사회화해내려는 작품으로는 김신복의 “메토끼의 나팔주둥이”(「메토끼의 나팔주둥이」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를 들 수 있다. “메토끼의 나팔 주둥이”는“입으로만 떠들고 팔포만 놓은 사람은 안되지 실제 일을 해야지” 라며 노동애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낙서의“하늘로 날아 오른 꿈네 꽃밭(「싸리골로 이사온 꿈형제들」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은”...《꿈아어서 꽃밭을 만들자 아무리 평강하고 좋은 생각을 했다 하여도 제때에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란다》…“라며, 리수익의“타발 많은 토끼”(「타발 많은 토끼」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는 “…《일할 생각 보다 타발부터 앞서는 네 버릇부터 고쳐야겠다》…”며 허장성세와 나태를 경고한다. 이외에도 작자미상의 “늘고 먹던 꿀꿀이”(「나비와 수탉」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에서 게으르고 일은 조금도 하지 않던 꿀꿀이가 결국은도살되어 잔치상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우화를 통해 나태의 결과에 경고를 하고 있다. 최복선의 “조롱박과 쭈그렁박”(「조롱박과 쭈그렁 박」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에서도 나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종을 울린다.

“…《여보게 너구리 일은 하지 않고 공짜만 바라며 몰박 농사를 지은 자네인데 그곡간에 쭈그렁박 밖에 쌓일 것이 뭐 더 있겠나》《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얼룩진 마음을 췌 버리고 일터로 가세》 그대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달은 너구리는 호미를 들고 이웃 짐승을 따라 일터로 나갔습니다…”

한편 두번째 하위주제인 노동 자체나 노동자의 귀중함을 중심주제로 한 작품은 마운룡의 “명명이와 꿀꿀이”(「빨간 금붕어」)에서처럼 생산은 가치있고 소비는 악덕이라고 강조하거나 리송필의 “사슴형제”(「신기한 생물」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에서 처럼 일의 소중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의 소중함은 작자미상의“보물망치”(「신기한 생물」)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아저씨는 신기한 보물망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힘들게 일만 하나요》하고 물으면 귀동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늘 이렇게 말한답니다. 《일을 해야 보물망치가 제구실을 한단다. 그러니 일이 진짜 보물이지!》…~

그리고 노동자들 직접 찬양하는 작품은 리원우의“큰 고간속에 생긴일”(「행복의 동산」 1981, 평양, 금성청년출판사)과 김도빈의 “제일 큰 힘”(행복의 동산)을 들 수 있다.

저길봐라 옷에 기름 묻은 사람들이 기계를 운전하고 있구나 확실히 그렇지? 급급아 힘센 것이 무엇인지 차차 알려지는 것 같구나 기차도 트랙도르도 기중기도 다른 기계도 죄다 사람들이 운전을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고 있던 말이야 얼마나 굉장한 힘이냐! 그런데 그사람들이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란 말이야...(김도빈의 “제일 큰 힘”)

이상에서 노동애호란 핵심정치사회화주제가 동화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  
가를살펴보았다. 이런류의 동화들은 북한의 어린이에게 나태나 허장성세를  
저버리고 가치있는 일(노동)에 열심히 매달릴 것과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만이  
오로지 가치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사회화시켜 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 라)계급교양

계급교양은 북한사회의 해설에 따르면 확고한 노동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노동계급의 입장에 서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것<sup>9)</sup>을 의미한다. 북한사회는 주권이 노동계급에 있다고 주장되고 모든  
교육은 노동계급적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창되고있으므로 유년기 사회화단계에서  
노동계급적 관점의 교양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체 분석 동화중 계급교양을  
중심테마로 강조한 동화는 18.8%인 3편으로 집계되었다. 계급교양을 중심테마로  
한 동화는 핵심정치사회화주제를 담은 동화 144편중 25.7%를 차지해 계급  
교양집단주의 다음으로 빈번히 다루어진주제임을 알 수 있다. 즉 계급교양은  
유년기 정치사회화과정에서 집단주의의식의 주입에이어 두번째로 중정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정치사회화주제임이 확인된다.

계급교양이 동화속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4가지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다.  
첫째 원쑤(자본가, 제국주의자, 착취자, 지주등을 포괄하여 쓰는 통칭임)의  
본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동화속에 나타난원쑤는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  
밖에 없는 탐욕의 덩어리이며 원쑤의 본성 상이들이 취하는 우호적 태도는  
결국 착취의 미끼라는 식이다. 이러한 테마의강조는 결국 어린이들에게 그  
의식속에 계급적 원쑤의 상을 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위항목의 주제를 갖는 동화는 계급교양으로 분류된 동화 37편중



62.2%인 23편이나 되었다. 둘째 하위 항목으로는 간악한 원수를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집단적 응징을 함으로써 행복을 얻게 된다는식의 혁명교양과 결합된 형태의계급교양이다. 이런 류의 동화는 9편이 발견되었다. 세째로는 역사적 사실로서 과거를 억압과 착취상태로 규정하고 소위 ‘낙원’으로서 현재의 북한사회상태와 비교시켜 착취제도를 비판케 유도하는 작품들이 3편 있었다. 마지막으로 원수에 대한 경각심이 끝없이 요구됨을 강조하는 것을 주제로 삼는 작품으로 전체37편의 계급교양 주제 동화중 2편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첫번째 하위 항목인 원수의 본성을 폭로하는데 초점을 맞춘 동화로는 최복순의 “다시기어든 삼바리”(「얼음산의 소동」)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를 들수있다.

“《몽땅 쓸어 버렸어. 한놈도 남김없이 우린 모두가 이번일을 잊지 말자  
 놈들을 깨끗이 요절내지 않고 각성을 늦추면 대함이처럼 살려보낸 원수들에게  
 도리어 목숨을 잃게 된다는것을 말이야》…밥조개는 남의 피와 살로 살아가는  
 그놈들의 본성이 변할 수 없는 이상 계속 악을 쓰며덤벼들기 때문에 원수놈들은  
 한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어요…(리복순의 “다시 기어든  
 삼바리”)

또한 김선의 “여우와 새끼곰”(「타발 많은 토끼」)에서도 반달떡을 초생달떡으로 만들어 준다며 마침내 떡을 다뺏아 먹은 여우에 대해서 “원수놈들은 여우처럼 교활한것” 과 “달콤한 말이나 꾀임수에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외에 김상현의 “구렁이와 독수리”(「타발 많은 토끼」) 허성현의 “거미네 집안”(「타발 많은 토끼」), 유봉준의 “누가 누굴 제겼나”(「타발 많은 토끼」), 박종열의 “마른 풀 먹는 승냥이”(「타발 많은 토끼」)등도 제국주의자, 착취자의 약육강식의 본성을 중심주제로 강조하고 있는 동화들이다. 이러한 동화속에서 원수들은…보라 이것이 제국주의자의 참다운 친선과 형제적 단결의 해사한 웃음속에 파묻은 칼을 감춘 약탈자의 더러운 운명을 갖은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리해용의 “배터진 육십자루”나 “두부 바위이야기”(「배터진

육심자루」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는 탐욕스런 지주를 통해 착취제도에의 적개심을 전달하는 동화이다.

이어서 두번째 계급교양의 하위항목으로 계급교양을 혁명교양과 연결시키고 있는 동화들은 주인공(개인 또는 집단)이 주체적으로 원수를 타도하고 행복을 찾는다는 일정한 줄거리를 갖는다. 이런류의 동화는 9편이 발견되어 계급교양을 중심주제로 한 동화 37편중 24.3%를 차지한다.

최낙서의 “효동이와 깜장 병아리”(「얼음산의 소동」)은 악랄한 지주와 마름이 행한 억압을 마침내 효동이와 마을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둘다 죽이고 행복을 찾는다는 데서 끝이 난다. 이 동화는 효동이와 마을사람들이 원수놈들을 처단한 것이 너무 기뻐서 덩실 덩실 춤을 추며, “그날부터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데서 이야기를 끝내고 있다. 그리고 강효원의 “별박이네 함정”(「알락 다람쥐」 198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도 비슷한 스토리 구성으로 계급교양과 혁명교양을 의도한 작품이다. 즉 “약한 짐승들의 피와 살로 배를 채우던 승냥이 이놈 네놈은 끝장이다... 그때부터 봉학산의 착한 짐승들은 승냥이 없는 동산에서 힘과 재능을 더욱 키우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식이다.

이외에도 이러한 류의 동화로는 김신복의 “사슴과 호랑이”(「메토끼의 나팔 주둥이」) 김박문의 “뿔악마와 세소년”(「뿔악마와 세소년」 1984,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세번째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과거 시대를 억압과 착취의 시대로 규정하고 과거의 가혹한 피착취상황을 상기시키려는 작품이 3편이었다. 여기에 속한 동화로는 김신복의 “돌아다니는 박물관”(「메토끼의 나팔 주둥이」)와 “재미나는 옛이야기”(1986, 평야우 근로단체출판사)에 실린 “온정터와 선녀바위” “도라지 전설”이 있다.

“돌아다니는 박물관”은 “...그 낱알은 터무니 없이 비싼 소작료에다가 장 리쌀이요. 무슨 빛값이요하고 빼앗아가는 지주놈한테 몽땅 털리우고 몽당

비자루만 들고 일어서는 소작인과 함께 피눈물을 흘려오던…“시절을 상기시키며”…  
 우리도 그렇네! 썩은 좁쌀을 한줌 꾸어주고는 백옥 같은 입쌀로 열스무배를  
 받아내던 그 날감도놈의 아가리에 흙이라도 꼭 퍼먹었어야 하는 건데…“라며  
 과거의 착취상황을 어린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또한 “온정터와 선녀바위”,  
 “도라지 전설”에서는 지주의 확대와 억압에 못이겨 결국 죽게 되어 바위가  
 되거나 도라지가 된다는 전설을 동화로 꾸며 과거 역사는 곧 착취와 억압의  
 역사였다고 어린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네번째 하위항목으로 원쑤의 호시탐탐한 호전성과 간악한 계교를  
 늘경계하고 소년단 교시중에 자주 등장하는 〈경각심〉을 갖을 것을 강조하는  
 동화로는 고상훈의(「검둥이와 얼룩이」 1977,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외1편이 있다.

“애들아, 이세상에 승냥이와 같은 악한 짐승들이 남아 있는 한 우리 더욱  
 창을 든든히 잡아야 한다. 모두 검둥이의 본을 따라 창을 더 잘 다뤄  
 나가자…”(고상훈“검둥이와 얼룩이”)

이상에서 계급교양이라는 핵심정치사회화주제를 중심 테마로 하는 동화작품을  
 검토하였다. 계급교양을 다룬 동화의 분석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동화속에  
 설정된 원쑤는 철저한 응징의 대상이 될 뿐 만 아니라 그 응징의 정도는  
 철두 철미한 파멸, 즉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거의 대부분의 동화에서  
 침략자, 지주, 착취자는 돌이나총칼로 쳐 죽이도록 하거나 급류에 휩쓸려  
 죽게 하거나 벼랑에 떨어 뜨려 죽이는 것으로종말을 맞게 구성되어 있었다.  
 원쑤에 관해서는 법에 의한 심판도 생략되며 관용을 베풀어 목숨을 살려주는  
 일들은 일어날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을 원쑤에 대한 철저한잔인성을 갖도록 사회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의식에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외경심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 마) 사회주의 애국주의

초기 정치사회화론은 애국심의 형성이유년기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기여라고 지적했다. 남한의 유치원 교육목표에서도 사회영역 학습목표의 하나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갖기를 설정하고 있다.<sup>10)</sup>이점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애국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조국애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노동계급과 근로 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키는<sup>11)</sup> 애국주의라고 정의되고있다. 또한 그것은” 그 기본을 이루는것이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며계급의식, 사회주의 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화분석에서 발현된 사회주의 애국주의는 북한사회를 가장 좋은 나라로 찬양하는 것이 10편, 국가의 공공물아끼기를 주제로 내세운 것이 2편, 조국에의 애국을 위해 근면할 것을 지적한것이 1편이었다.

먼저 북한사회를 이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부각시킨 작품을 보면, 박태술의 “쫓겨간 추위왕”(「사슴과 호랑이」)는 북한 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추위왕의 눈앞에는 굉장한 정경이 벌어졌어요. 지붕위에 각종 안테나와 기상기구들이 수풀처럼 일떠선《농업궁전》이라고 쓴 높은 집마당에 오색기와 프랑카드를 들고 수없이 모여선 농기계들과 종자, 비닐박막 그리고 비료들, 추석단에는 《천리마로》뜨락또르 통통이가 올라섰는데 광장에서 계속 구호가 터졌습니다...”

또한 조상철의 “누가 섬유의 왕인가”(「사슴과 호랑이」)는 나일론을 발명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라며 북한사람들의 지혜를 칭송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김승길의 “만풍년벌에서 있는 재판”(「알라다람쥐」)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농사를 잘지은 나라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덕 없는 나라로서 북한사회를 찬양한다

10)문교부 유치원 교육과정중 사회생활발달 영역에서 국가생활부문에서 애국심 갖기를 주요교육목표로 되어있다. 나병술, 전게서, p.401.

그런데 이러한 북한 사회의 우수성은 남한사회를 비참하게 왜곡시켜 대조 시킴으로써 더욱 강조되고 있다. “만풍년벌에서있는 재판”에 묘사된 남한사회상은 “약간만 가물어도 곡식이 뻐뻐 말라 타죽고 약간만 비를 뿌려도 산이 무너지고 물사태가 나구...○○○ 군사깡패놈이 전쟁연습을 하느라구 화약내만 풍기며 밤낮 계엄령인지 뭔지 퍼놓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잡아 가두는 곳이다. 이러한 남북을 대비시키는 동화는 김승길의 “얼음산의 소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북한이 살기좋은 나라라는 것을 강조시켜 어린이들에게 사회주의애국주의를 사회화시키는 동화로는 김우영의 “물방울”(「행복의 동산」 1981,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찬홍의 “미국비행사와 그의 세균부대”(「행복의 동산」), 김용권의 “열두번 뜨는 해”(「행복의 동산」), 최낙성의 「개구리 박사의 여행」(「행복의 동산」)등이다.

이어서 국가의 공공물사랑하기라는 중심테마는 차정도의 “재빛 산야의 뉘우침”(「타발 많은 토끼」), 황령아의 “우성이가 다진 맹세”(「빨간 금붕어」)에서 나타난다.

이에 반해 김신복의 “푸른 앞의 비밀”(「메토끼의 나팔 주둥이」)은 조국에 애국하는 길은 실속있게 공부하는것이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애국하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해주는 작품이다

#### 바)주체사상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나 기타 문건에서 강조되는 주체의 확립은 구체적으로 자주자립과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과 국방에서의 자위의형태로 나뉘어진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바 주체사상을 부각시키려는 동화류는 전체 동화류의 6.6%인 13편이었다. 이중 13편이 자기자신의 힘과 지혜로서만이 존립할 수 있다는 자립의 테마를 펴고 있다. 따라서 모방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3편의 동화까지를 고려하면 13편중 11편이 자주 자립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머지 2편중 1편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다른 1편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암시하는 자기 스스로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먼저 자주, 자립을 중심 테마로 하는 동화를 보면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힘을 넘겨다보며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하니 저절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최낙서의 “꿀샘 솟는 항아리”, 「꿀샘 솟는 항아리」,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그런데 넌 언제 그 면에서 저런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니?》  
‘도루메기는 그 눈부신 모든 것이 산호섬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날치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가져오긴 어디서 가져와》 《그럼저것들은  
다 어디서 났니?》 《응 우리 앞바다에 있던 거야》 《뭐? 그럼 바위섬  
앞바다에도 저런 눈부신 보물이 있었던 말이나》…”

(원도홍의 “바닷속의 무지개 동산”(「바닷속이 무지개 동산」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그러기에 흠뻑어처럼 남에게 매달려사려다간 나중엔 저를 잡아 먹으려는  
원썩놈도 모르고 달라 붙는 머저리가되는 법이야…”(원도홍, 앞의 동화)

위에서 나타나듯 자주,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형운의 “우리동산의 보물”(「신기한 생물」)김형운의 “오소리를 이긴 두더지”(「바닷속의 무지개 동산」), 최낙서의 “그림 토끼들의 운동회”(「빨간금붕어」)도같은 중심테마를 갖는 작품들이다. 이렇게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무조건적 모방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 행동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남의 말을 졸졸 따라 외우는 새를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새로 여겨온  
내가 바보야…”(“아마 벗겨진 앵무새”, 「나비와 수탉」 1983, 금성청년출판사)

또한 강효순의 빨난 너구리(「행복의 동산」)과 진덕화의 “와새를 본따던 물오리”(「타발 많은 토끼」)도 자신에 맞는 방법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남의 것을 따라 하려다 실패하게 된다는 줄거리의 전개를 통해 모방을 비판하는 동화작품이다.

한편 김신복의 “수수께끼는 누가 풀었나”(「메토끼의 나팔주둥이」)의 중심 테마는 “~~천람천람이~~모든것없이주인만이판는다. 려지 이제야 수수께끼가 환히 풀리었다》〈그대, 너희 맑은 아침의 나라에 억년 만년 풍년이 드는 수수께끼가 무엇이냐?〉…〈울거나 모두가 주인이 되어 전체와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김신복의 “수수께끼는 누가 풀었나”)

그밖에 국방에서의 자위를 강조한 작품으로 최충용의 “꼬마노루의 가시목걸이”(「신기한 생물」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는 “나는 오늘에야 똑똑히 알았어, 누가 원썩을 갚아 주기를바랄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힘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이라며 주체적자위를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체사상 교양으로 분류된 동화들은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힘과 지혜를 통해 존립하고 투쟁하고 발전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었다.

#### 사) 남한에 대한 태도

동화분석에서 핵심적인 중심 테마 하나만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태도만으로 중심 테마를 한정시킬 수 있는 작품은 거의 없었다.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남한사회를 비참하고 정체되고 흉년으로 굶주리는 사회로 묘사하는 작품은 사회주의 애국주의로 분류했던 북한사회를 찬양하는 동화들과 중복되었다. 따라서 남한사회를 제국주의에 의해 착취된 피폐한 상황으로 묘사하고 더 나아가 어린이들이 남한사회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중심테마로 내세운 작품은 단 7편이었다. 김우영의 “파란집 동무들”(「행복의 동산」)이

그것인데 이동화는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이제 승냥이를 몰아내고…남북의 온겨레를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으로 힘차게 불러 일으키고야말겠다는 불같은 마음”을 심어주려는 작품이다. 이같은 통일염원은 분석된 동화 곳곳에 반영된 시각과 일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동화에서 주입되는 남한 사회상은 자신들이 성장하여 해방시켜 내야 할 ‘억압과 착취의사회’로 규정되어 있는셈이다.

#### 아) 혁명교양

혁명교양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따르면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 승리의필연성, 미래의 낙관적 전망을 신념화시켜 공산주의를 위해 모든 것들 다 바쳐투쟁하며 계속 혁명을 해나가도록 사회화 시켜내는 것으로 규정된다.

여기에 속한 작품은 총9편으로 전체 197편의 4.6%에 해당되었다. 그중7편은 혁명적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작품이었고 2편은 지속적 혁명성의 유지를 강조한 작품이었다.

혁명적 경각심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김신복의 “연필포탄”(「메토끼의 나팔주둥이」)은 “글자 하나를 써도 미제승냥이 열놈, 백놈을 무찌르는 기세로 학습하자…라며 비판의 불길로 생활할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역시 김신복의 “점백이와 얼룩이”(「메토끼의 나팔주둥이」)에서도 “원수의 간악한 흉계를 물리치도록 더욱 똑똑해져야 하며 혁명적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테마를 내세우고 있다. 박상용의 “뿔없는 사슴”(「뿔없는 사슴」 1984,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와 김박문의 “달래동산에서 있는 약사건”(「알락 다람쥐」) 김형운의 “멍멍이네 세 쌍둥이”(「얼음산의 소동」)도 동일 주제를 중심테마로 한 동화들이다.

한편 지속적 혁명성의 유지를 강조한작품으로는 리호원의 “새집에 든 오색너구리”(「타발 많은 토끼」)에서는 “새집 받고 편안히 살게됐다고 흥얼흥얼 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지난 날잊지 말고 열성을 내여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지…”라며 지속적인 혁명을 위한 후비대로서의 태도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마운룽의 “어린 갈매기”(「행복의 동산」)에서도 반복된다. “어린 갈매기야 이제는 이 끝없는 활무대가 너의 것이다. 내 천길물속에 간직했던 갖가지 보물들을 모두 너에게 주마” 하며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용감하고 역세계 자라 혁명의 후비대가 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혁명교양으로 분류된 작품을 살펴보았다.

## 2) 비정치사회화 주제

분석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전체의 26.9%인 53편의 동화가 직접적인 정치사회화 도구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고 있음은 주목된다

비정치사회화주제를 중심테마로 하는 동화는 본 연구의 주제에서 부수적인 것이기때문에 간략히 고찰코자 한다.

〈표3〉 비정치사회화주제의 분포

	빈도(편)	비율(%)
슬기, 지혜, 창조적, 지적 탐구심 강조	14	26.4
전통미덕(효, 인정등)	10	18.9
자기반성태도강조	4	7.6
신념과 인내	4	7.6
절약정신	3	5.7
사이좋게지내기	2	3.8
허영반대	2	3.8
남녀평등정신	1	1.9
계	53	100

53편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비정치사회화주제는 슬기, 지혜, 창조심 또는 지적 탐구심을 갖을 것이다. 이부류에 든동화는 전체 53편중 26.4%인 14편이었다.

마수환의 “곰의 버린 돌”(「타발 많은 토끼」)는 “무슨일이 던지 앞뒤를 생각하고 간지게 해야지 이렇게 곰처럼 되는대로 하다가는 낭패를 보고 공연히

몇곱절의 노력만 허비한다”며 슬기로운 행동을 강조하고, 김용권의“토끼의 겨울”(「사슴과 호랑이」)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것을 강조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될것을 강조하여 김준옥의 “꼬마 박사”(「사슴과 호랑이」)에서도 “발명하는 모범어린이가 되자”는 중심주제를 내세우고있다. “두장군의 이야기”(「나비와 수탉」)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에서는 직설적으로 슬기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사람은 힘도 세야 하지만 슬기도 다같이 있어야 하네…》

이어서 비정치사회화주제중 두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중심테마는 근면, 성실성으로 전체의 20.9%인 12편이 여기에 속한다.

원도홍의 중편동화 “장수나무 열매「장수나무 열매」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는 “이세상에 공들이지 않고 만든 열매가 어디 있겠니…”라며 근면과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원도홍의 “요술쟁이 간판”(「꿀샘 솟는 향아리」)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성실하게 앞날을 대비하라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있다.

“그러기에 고간들을 짓자구 했는데 너는 검열이나 받자구…그래…얻은 것이 뭐냐 결국 네가 힘들게 거둬들인 겨울에 먹을 그 술한 밤을 잃은 것 밖에 있나…” 최낙성의 “푸른 궁전의 선물”(「행복의 동산」)역시 “정성껏 행동하면 후날에 보람이 차례질 것”이라며 성실한태도를 중심테마로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세번째 빈도를 보이는 주제는 전통미덕인 효, 인정, 절개등으로 비정치사회화주제의 18.3%인 10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승화의 「수정봉의 전설」(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과 “바다 가운데 솟아난 흰바위”(「재미나는 옛이야기1」), “효성이런 며느리”(「재미나는 옛이야기1」)는 효심을 중심 테마로 한 작품이며, “백일홍에 깃든 이야기”(「재미나는 옛이야기1」), “첫날밤의 약속”, “연못가의 툽소소리”, “사랑산과 절부암”, “묘향산의 팔형제 총각”(이상, 「재미나는 옛이야기1」)은 선한 인정과 절조, 사랑등을 중심테마로 한 작품들이다.

그밖에 주제들로는 물건을 아껴쓰고 폐품을 활용할것(3편), 끝까지 신념을가지고 인내로서 목표를 이룰 것(4편), 시간의 귀중함(1편), 사이좋은 우정(2편),

허영을 버릴 것(1편), 남녀 평등의식(1편), 자기반성(4편)이 확인되었다.

#### 나. 아동소설과 만화(아동그림책)

아동소설의 경우(13책45편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심테마는 앞서 분석틀로 제시한 8가지 핵심정치사회화 주제중 단일 주제로 포착하기가 어려웠다. 아동소설은 그주제로서 김일성이 소년단원에게 내린 교시내용이 강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주제가 복잡적이다. 이점을 감안하여 객관성 확보의 미비라는 위험을 안고 분류한 주제의 분포는 총 45편중 25편이 혁명교양에, 11편이 계급교양에 해당된다. 그리고 김일성에의 충성을 중심테마로 한 작품이 6편이었고 나머지는 집단주의2편, 사회주의애국주의1편이다.

혁명교양의 작품인 경우 거의 모든 작품이 계급교양과 연두되어 있고, 또한 김일성에의 충성을 강조하는 테마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금성청년출판사에서 1978년, 1979년, 1980년 3회에 걸쳐 간행한 「금별 빛나는 영웅아저씨」들

1, 2, 3권에 실린 12편의 아동소설은 혁명교양이 계급교양 및 김일성에의 충성과 혼합된 전형적인 혁명후비대를 위한 작품들이다.

이외에 혁명교양의 단일 테마를 부각시키는 작품으로는 「소년결사대원의 위훈」(1977,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항상준비하자”(「어느것이 좋은가」1960, 아동도서 출판사) “싸워 이긴 아이들”(「어린 불새들」 1980, 금성청년출판사) 리룡익의 “자동차는 전선으로 달린다”; 리준길의 “새로운 임무” 강효순의 “아동단원 상호” 김원종의 “발벗은 아이”(이상 「어린 불새들」) 등이 있다.

11편의 계급교양을 중심 테마로 한 아동소설의 경우 그중 절반 가량이 과거 억압과 착취를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나머지 6편이 원썩-특히 지주-의 본성과 파멸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실화소설 「단지속의 토지문서」(1978, 평양, 금성청년출판사)는 지주의 간악성을 강조하여 계급의식을 불러일으키려는 작품이다. 또한 현재 남한을 착취상태에 놓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개심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계열에 속한 작품은 김동진의 “수난의 시절”(「수난의 시절」, 1980,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동일 저자의 “배나무집의 운명”(「수난의 시절」)은 일제의 가혹한 착취를 통해 계급의식을 사회화시키려는 작품이다. 역시 “땡꼬 놀음”, 리진화의 “달뜰 무렵”, 김용권의 “설날”(이상 「어린 불새들」), “20원에 팔려간 옥연이”, “곡마단의 종살이”, “생눈알 뺨을 기막힌 세상”, “한수리공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이상 「집없는 형제」, 1987, 평양, 금성청년출판사)등도 투철한 계급의식을 중심 테마로 삼고 있다. 마찬가지로 “집없는 형제”(「집없는 형제」)도 “소년단원들은 착취와 억압을 당하여 보지 않았고 간고한 혁명 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세대들입니다. 소년단원들이 대를 이어 혁명하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를 미워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고 결론 짓고 있었다.

다음으로 김일성의 충성을 강조한 아동소설 6편을 모두가 다 소위 항일유격투쟁과 연관된 소재의 작품들이었다.

이외에 집단주의를 보여준 작품으로는 강효순의 「분단위원장」(1964, 평양, 아동도서출판사)과 작자미상의 「열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기」(1981, 평양, 금성청년출판사)가 있다. 이중 「열다섯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십오소년 표류기와 흡사하였다. 사회주의 애국주의를 중심 테마로 한 아동소설로는 리진화의 “학일이는 자랍니다”(「어린 불새들」)가 해당되었다.

한편 그림책 즉 만화의 경우 분석 대상이 된 14책 33편의 만화는 소재, 줄거리의 전개방식 주제면에서 천편일률적이었다. 모든 분석대상의 그림책은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조국해방전쟁시기」 즉 6.25당시와 일제와의 투쟁시기를 배경으로 아동단원들의 투쟁, 즉그들식의 조국에 대한 충성과 김일성의 충성을 동일시하면서 지주 제국주의자와의 싸움에 앞장 선 어린이들의 활약을 그린 것이다.

따라서 핵심정치사회화주제와 연관시켜볼때 33편 모두가 혁명교양에도 분류되고

계급교양에도 분류되며, 그중 19편은 김일성에의 충성 항목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예를들면「습격 조원들」(198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은 “이제 승냥이 원수놈들아, 네놈들 앞에 누가 서 있는가를 똑똑히 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의 전사는 죽음을 모른다!…”고 김일성에의 충성도를 투쟁의 열기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최성순의 “03호의 비밀”(「예리한 눈초리」 1980, 평양, 금성청년출판사)에서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한놈의 간첩 한놈의 파괴 암해분자라도 일썩 못하게 낚날이 잡아대자…”며 지속적인 혁명적 경각심을 강조하기도 한다.

## V. 結 論

통일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기에 북한사회를 보다 잘 인식해야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었다. 북한사회의 장기적인 일인지배체제는 인민층의 종교에 가까운 동조와 지지태도의 사회화없이 가까운 동조와 지지태도의 사회화없이 유지되기 어렵다. 본논문은 이러한 동조와 지지태도를 형성시키기쉬운 유년기사회화과정을 밝혀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북한사회의 유년기 사회화의 분석은 북한사회의 정치사회화 특성중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사회는 체제에 대한 특수지지 보다는 확산된 지지에 기반하여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확산된 지지는 초기정치사회화 즉 유년기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치적 정향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주요 문건의 분석을 통해 볼때 공표된 유년기사회화의 목표는 집단주의, 김일성에의 충성, 노동애호, 계급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혁명교양, 남한에 대한 태도형성등이었다. 이것이 곧 유년기의 핵심정치사회화주제인 것이다. 이 주제들은 동화, 아동소설, 만화에서도 중심 테마로 빈번히 등장함으로써 북한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사회화시키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적어도 사상투쟁무기로 규정된 북한 사회의 어린이용 출판매체를 분석해 볼때 북한사회는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어린이들을 정치사회화시켜내고 있었다. 특히 통화의 경우 분석대상 작품 197편중 73.1%인 144편이 8개의 핵심정치사회화주제를 중심 테마로 삼고 있었다.(나머지 53편은 비정치사회화주제들이었다) 이 핵심정치사회화주제의 강조 순위는 집단주의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계급교양이었다. 이어서 김일성의 충성, 사회주의 애국주의, 주체사상, 노동애호, 혁명교양, 남한에 대한 태도형성순이었다.

이중 집단주의와 노동애호라는 주제는 일면에서는 어린이들을 긍정적 방향으로 적향지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반면, 계급교양, 김일성의 충성들 그 나머지주제 모두는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왜곡이포함된 정치적 정향을 어린이들에게 사회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혁명교양과 계급교양을 중심주제로 한 동화들에서는 대부분 원쑤에게 참혹한 응징을 안기는 것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회화의 결과는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인명존중 인권존중의 보편적인가치를 무시하게 할것으로 우려되었다.

## 참고문헌

### 1. 일반도서

- 고후순, 유아교육학개론, 1986, 학문사.
- 국토통일원, 북한의 교육실태와 특징, 1986.
- \_\_\_\_\_, 북한 탁아소제도의 문제점, 1976.
- \_\_\_\_\_, 「남북한의 정치사상교육비교연구-초.중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1980.
- \_\_\_\_\_, 「북한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연구」, 1978.
- \_\_\_\_\_, 「북한의 학교교육과정분석-인민학교및 고등주학교」, 1987.
- 金在永, 정치사회학론, 1982, 대왕사, 서울.
- 나영술,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1983, 교학연구사.
- R. E. 도오슨(저), 정세구(역) 「정치사회학론」, 1981 범문사, 서울.
- 이철희, “북한의 사상정책과 정치교육” 국토통일원 「민족재결합의 모색」, 통일교육자료 10집.
- 에리해프롬(편), 사계절(역), 「사회주의 인간론」, 1982, 사계절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북한개요」, 1986, 서울.
- Bernard Berelson, 「Content analysis」 1971, Hafner publishing Company Inc. New York.
- David Easton and Jack 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 Origin of Political 「Legitimacy」, New York, McgrawHill, 1969.
- Donald D. Searing, Joel J Schwartz and Alden E Lind, “ The Structuring principle : political Socialization and Belief System” A.P.S.R. Vol. NO.2. 1973. Jun. pp.415-43.2
- Fred. I. Greenstein, “The Benevolent Leaders : Children’s Images of political Autho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NO.4, 1960. pp. 934-945.

Holsti ole,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obert E. Land, 「Political Man」, 1972, Yale Univ. press.

## 2. 특수도서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학」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  
중앙연감」 1971년도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유치원 교양원 참고서-유치원  
초급반용」 1966. 평양(동경 학우서방 번안)

김재한, 「어린이 보육교양 경험」 로정순편집,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86.

김일성,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1976, 평양, 조  
선노동당출판사.

월간 「아동문학」 89년 각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양

<동화>

고상훈, 「검둥이와 알룩이」, 1977,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권택무, 「홍부와놀부」 1986, 평양, 조선미술출판사.

근로단체출판사편, 「재미나는 옛이야기」 1986,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신복, 「메토끼의 나팔주둥이」,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형운저, 「신기한생물」,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편, 「꿀샘솟는항아리」,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 「나비와 수탉」,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 「날개달린룡마」, 198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 「바다속의 무지개 동산」,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 「빨간금붕어」, 1977, (학우서방번각 발행 1979), 금성청  
년출판사.

\_\_\_\_\_ , 「배터진 욕심자루」,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 「백두산의 장수벌」, 1979, 평양, 조선청년사동경 번각발행),  
금성청년출판사.

\_\_\_\_\_ , 「사슴과 호랑이」,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 \_\_\_\_\_, 「짜리골로 이사온 곰 형제들」,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신기한 생물」,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알락 다람쥐」, 198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얼음산의 다람쥐」, 198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조롱박과 쭉그럼박」,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타발많은 토끼」,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행복의 동산」, 1981,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호랑이를 이긴고슴도치」, 1984,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박사용, 「뿔없는 사슴」, 1984,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원도홍, 「장수난무 열매」,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전승화, 「수정봉의 전설」, 198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정도유, 「동물세계 탐험기」,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최낙서, 「막내 두꺼비의 갑옷」, 1983,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 <만화>

- 금성청년출판사(편), 「암호속의 비밀」, 1977, 평양, 금성출판사.  
 \_\_\_\_\_, 「사랑의 햇빛을 안고」, 1978, 평양, 금성출판사.  
 \_\_\_\_\_, 「빈집에 찾아온 이상한손님」, 1983, 평양, 금성출판사.  
 \_\_\_\_\_, 「예리한 눈초리」, 1980, 평양, 금성출판사.  
 \_\_\_\_\_, 「돌박산에 오른 신호탄」, 1980, 평양, 금성출판사.  
 \_\_\_\_\_, 「일정을 잡아낸 아동단원들」, 1983, 평양, 금성출판사.  
 김룡운, 「춤을 권소년들」, 198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홍익, 「습격조원들」, 198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최희규, 「소년복수자들」, 1981,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장군님을 따르는 아동단원들」, 1982,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허능택, 「지혜와 용감이」, 1981,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홍종원, 「영광으로 빛나는 소년군위대」, 1980,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홍종호, 「이상한 머리카락」, 1980,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홍종원, 「파탄된 구러이작전」, 1984,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아동소설〉

금성청년출판사, 「금별빛나는 영웅아저씨 I」, 1978,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금별빛나는 영웅아저씨 II」, 1979,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금별빛나는 영웅아저씨 III」, 1970, 평양, 금성출판사.

\_\_\_\_\_, 「단지속의 토지문서」, 1978,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강효순, 「분단위원장」, 1964, 평양, 아동도서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소년결사대원들의 위훈」, 1977,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학연, 「소년 빨치산 서강렬」, 1978,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김동전, 「수난의 시절」, 1980,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오락천, 「손퐁금소리 울려라」, 1977,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아동도서출판사편, 「어느것이 좋은가」, 1960,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어린 불새들」, 1980,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열다섯소년에 대한이야기」, 1981,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_\_\_\_\_, 「집없는형제」, 1987,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

北韓의 幼年期 社會化에 對한 研究

---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1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5호 ☎ 720-2141, 2425

간행책임 : 보좌관 사 순 문

인쇄소 : 대우인쇄(주)

---

〈非 賣 品〉

